금주법구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군인도 되며
행위에 의해 제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도 된다.

-숫타니파아타-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주간) 제341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공양 때마다 '오관게' 독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사찰수련회나 가서 하는 것으로 인식된 오관게(五觀偈)를 일상에서 매일 독송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숍 유인자, 이하 하불동)는 지난 16일부터 '오관게 독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는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신행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25일 부산 청향선원을, 27일 대부도 둥지마을을 찾은 하불동 회원들은 점심 공양에 앞서, 선원을 찾은 일반 불자와 둥지마을 아이들에게 오관게를 적은 종이를 나눠주고 함께 독송했다. 이미 하불동 산하 지역법회와 소모임은 물론 회원들의 신행 현장인 부산구치소경비교도대에서도 오관게 독송이 매일 실천되고 있다. 하불동은 오관게가 써있는 스티커와 퀸덧트 등도 제작배포해 불교계 전체의 캠페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오관게는 공양에 앞서 부처님과 음식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향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은 게송이다. 즉 '이 음식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성적 질문과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바르고 보람찬 일을 하기 위해 공양한다'는 서원으로 구성된 이 게송을 읊으며, 먹는 동안에도 더욱 염심히 정진하며 남에게 베푸는 자비심을 놓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유대표시숍은 부산경남지역 지부장으로 있던 97년부터 회원 3명



과 함께 오관게 독송을 개인적으로 실천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관게 독송이야 말로 신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음식에 대한 탐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우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체득했고, 이를 널리 알리기로 서원을 세운 것이다.

"유 대표시숍은 "음식에 대한 탐심을 없애고, 그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회향되길 발원하는 오관게는 신심을 다지는 계율이자, 일상의 청규"라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하루 1달러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 미국과 보복 전쟁은 무슨 의미. 죽음에 취해 삶을 잃어버린 21세기의 초입. (8면)

◇주고 받음에 조금의 집착도 두지 않는 것이 불교의 '보시'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자들은 생색내는 보시조차 인색하다. (9면)

◇인도 '불가촉 천민' 힌두교도들 불교로 대거 개종. 카스트의 벽을 허문 불교 본래의 평등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 (10면)

◇부산 불교계 환경·인권·복지를 위한 '청정 결사'. 건듯 남풍 불 때, 꽃 향기 같은 아름다운 세상 소식이 실려 오기를…. (23면)

승가대 보육교육원 '운영난'

신입생 격감 재원 바닥… 폐원 위기

안암학사 임대로 이전 불가피

불교계에서는 단 하나뿐인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재정은 바닥났고, 교육원이 들어서 있는 중앙승가대 안암학사가 고시원으로 임대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고시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공사과실로 인해 단수의 단전이 반복되면서 몇 차례 휴강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학교나 종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새로 보육교사교육원 실장에 임명된 자용스님은 23일 "기독교계에만도 30개가 넘는 보육교사교육원이 있고 유아선교를 위해 계속해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뿐인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유아포교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와 종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심각한 운영난은 교육환경 및 관리 미비 등이 빚은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 98년 부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몇 년간 비축한 재정을 쏟아 부었으나, 원생부족으로 1년도 안돼 문을 닫은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올해 신입생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58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달 들어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200명 정원에서 최소 100여명은 돼야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 감소는 운영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신입생 감소는 노후한 건물 등 다른 교육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학교나 법인(종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상의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육교사교육원은 종단의 특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은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 문제도 심각하다. 안암학사 뒤 보타사의 비구니 수행관으로 쓰던 건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나 시간도 여의치 않다.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는 "이전이 늦어질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자칫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중앙승가대가 운영해오던 보육교사교육원은 지난해까지 1,0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대체복무 불가"

국방부 23일 입장 표명

국방부는 23일 특정종교 신도들의 집총거부에 따른 대체복무허용 주장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풍토를 확산시키고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나 복무기간 등에서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m@buddhapa.com



中 백림선사 조주 선차기념비 제막

한중 불교계는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 '끽다거(喫茶去)'의 도리를 일러준 조주(趙州: 778~897) 선사의 차 시비를 10월 19일 스님이 주석했던 중국 하북성(河北省) 석가장시(石家庄市) 백림선사(柏林禪寺, 옛 조주 관음원)에 건립했다. 앞줄 왼쪽부터 미륵사 주지 백운스님, 월간 '선문화' 회장 동광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스님, 불교춘추사 최석환 사장. (관련기사 12, 13, 22면)

중국 백림선사=김재경 기자

금강산 신계사 복원 조계종, 지표조사 실시

11월 2일부터 10일간

소실문화재 남북 공동복원의 첫 사례가 될 금강산 신계사 지표조사가 11월 2일(예정)부터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부 발굴조사단과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조계종 지표조사단(단장 학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금강산 신계사에 10일간 머물며, 지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표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간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온 남북불교교류 진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조사와 관련 조계종 사회부 윤효원 주임은 "조계종 지표조사단은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미 북한과 협의를 끝마쳤다"며 "현재 통일부와 조사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9일 총무원 청사앞에서 북녘동포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상차식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北 어린이 급식 지원 종단협, 올 동절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동절기 차강도 량강도등 혹한지역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교 급식품과 월동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협은 앞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7억4천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대북지원금 7억4천5백만원중 4억3천9백만원은 종단협 소속종단이 마련하고, 3억6백만원(전체예산의 약41%)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된다.

대북지원 정부지정단체인 종단협은 지난 7월 통일부 인도지원국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한지원사업을 수탁 받은 바 있다. 김원우 기자

"'조선불교 조계종' 재평가 작업 절실"

60주년 학술토론회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은 주체적 종단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고,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사 창건 91주년과 조선불교조계종 출범 60주년을 맞아 24일 조계사서 열린 학술토론회는 그 동안 '친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조선불교조계종의 '제 모습 찾아주기'가 중심주제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광식 씨는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은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 불교의 주체적 종단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그 동안의 부정적, 친일적 시각에서 벗어나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대 종정과 종무총장을 지낸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에 대한 인물 연구를 발표한 박희승(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 씨도 "현대 한국불교계를 이해하는 데 조선불교조계종의 바른 이해는 필수적인데도 교단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조차 방치되어 왔다"며 "교단의 존립을 위해 일제에 협력했던 불교계의 과거사에 대한 종단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혜봉 스님은 "현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전의 정화운동이나 조선불교조계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끄러운 역사도 엄연히 역사인 만큼 공과(功過)를 함께 살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봉 스님은 "학계뿐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禪속의묵향

석주·석정 큰스님 禪서화전

불교TV 에서는
새로운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석주·석정큰스님 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선향으로 "禪 속의 묵향"전을
마련 했습니다.


• 석주스님(철보사 조실)


• 석정스님(종로묵연문화재 제18호)



■일 시 : 2001.11.14(수)~11.20(화)
■주 최 :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
■후 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원문화재단,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
■장 소: 경평아트센터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구입문의(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사 설

조계사 짓누르는 고층빌딩

모든 가치의 기준을 경제적 부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단순한 경제 행위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새 시대의 안목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체가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재충전의 좋은 기회를 부여함을 깨닫고 문화유산의 발전과 보호, 정비에 각국이 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향도해 온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 자체가 나라의 부와도 직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역설한다.

조계사는 옛 이름이 각황사였으나 한국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태고사로 이름을 고쳐 부르고 근대에는 조계사가 되어 오늘의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 상징이다.

조계사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와 언론 및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아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근본도량이며 전통사찰인 조계사 대웅전 바로 앞에 24층 높이의 고층건물을 짓는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조계사 일대는 불교 유적뿐 아니라 개화기의 역사유물인 우정총국과 영국여왕 등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도 한번씩 관심을 가지고 다녀가는 인사동 등이 인접해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이다. 또 최근엔 조계사를 찾는 외국관광객도 크게 늘고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상의 최소한 허가요건만을 충족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차제에 문화재 바로 옆 50m라는 법규정도 현실을 감안해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경과로 보면 520세대가 들어서 살게 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조계사의 수행공간과 전통문화의 거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당국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지역에 뿌리심는 시민운동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온 지 몇 년,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불교계의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정착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계의 사회를 위한 회향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불자들의 의식도 전에 비할 수 없이 깨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면서, 지역사회에로의 확산을 통해 전국의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 등 몇몇 움직임을 빼면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의 한계를 지닌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던 것이 불교 시민운동의 현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에서 '청정과 화합의 사회를 가꾸는 모임'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불교 시민운동이기에 반가운 점도 있지만, 그것이 부산에서 일어났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은 전국 어떤 곳보다도 불자의 비율이 높으며, 또 뜨거운 신앙심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불교의 교세에 비하여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보수적 신앙에 머무르는 곳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부산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교 시민운동이 진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부산 지역의 뜨거운 신앙심에,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로 회향하는 지혜의 눈이 더해진다면 그 힘이 어떠할 것인가? 불교계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큰 힘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승가와 재가를 연합하여 올바르게 시민운동을 펼쳐가겠다는, 또 전 시민운동의 영역에 걸쳐 광범한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이 모임의 뜻이 올곧게 펼쳐진다면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는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재 유실땐 민·형사 처벌"

조계종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추진

1日 종회서 의결…재정사고 방지 기대

매월 사찰명의 통장잔고 증명서 발급

재정사고 등 고의적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행위자에 대해 총무원장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칭)사찰예산회계법이 11월 1일 개최되는 제 152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입법 추진된다.

사찰명의의 통장과 인장은 관리책임자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지는 매월 1회 사찰명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동안 몇 차례 발생한 사찰의 공금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찰의 예산 편성, 집행과 결산 및 이에 따른 회계처리 사항을 정하여 사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가칭)사찰예산회계법(안)은 교구본사가 본·말사의 세입세출예결산서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총무원 재무부에, 직할사찰은 총무부에 제출토록 규정(안 16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찰에서 일시(1년 이내) 차입금 사용 시 사유 및 금액, 상환방법, 기한 등을 명시하여 교구본사 종무회의 결의를 얻도록(안 6조) 했다. 결의를 얻지 않는 일시차입금은 무효로 하여 후임주지가 승계하지 않는다.

또 사찰은 매월 말 결산을 다음 달 5일까지 완료하여 현계표를 작성(안 20조)하고, 회계처리는 총무원에서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안 12조)해야 한다. 결산서에는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인원 및 급여·보시 현황표, 부동산 처분금 사용 내역서, 미수금 명세서, 부동산(토지, 건물 등)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 차입금, 적립금 및 대여금 명세서, 기타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안 21조)토록 했다.

공용수용 등에 의한 대토의 경우도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증으로 수입된 부동산 처분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토용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지 재임기간중 대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주지에게 대토용 보관금액 전액을 인계(안 26조)하도록 못박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진각종 총본산 건립한다

연말까지 부지선정…복지타운·박물관도

종조탄생백주년사업 확정

불교진각종이 종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효암 통리원장이 기념사업회장을 맡는 회당대종사 1백주년 기념사업은 그동안 검토해온 사업의 세부적 안이 19일 종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한 사업은 前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계승하면서(사업안은 지난 1월 발표) 종단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진각종은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종단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총본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부지가 선정될 총본산은 향후 총인 주석처와 선대스승 추모전, 기로원, 밀교사 박물관 등이 건립되는 진각공동체가 될 전망이다.

기념사업은 전문위원회별로 세부안을 마련 △종책기획 △포교교육 △문화복지 △교법종학 등으로 추진한다. 종책기획사업은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관 건립, 선대스승 추모전, 납골당 건립, 종단 4대성지 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포교교육 분야는 포교백서 발간, 진각대학원 대학교 설립,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도 어울림 한마당 등 참여와 화합의 불사를 추진한다.

문화복지사업은 △진각종 소리 통일화, 서원가 아카데미 설립, 영상물 제작, '회당문화축제', 탈북자 정착지원, 평양컴퓨터교습소 개설, 종합복지타운 '농림촌' 설립 등이다. 또 교법종학 분야는 진각50년사 발간, 국제학술회의, 밀교의식시현, 회당종조법어 사경대회 등을 추진한다.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참여·화합·회향 불사로 총 46개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경숙 기자

중강연수회 11월19~20일

교육원 순회강의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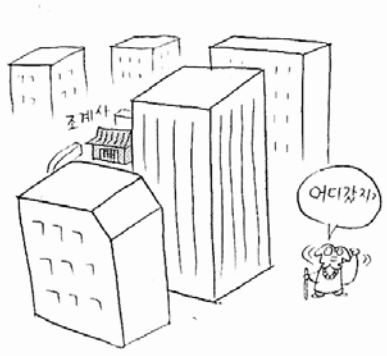
교육원은 23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지방승가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11월19~20일 서울 안암동 보타사에서 중강연수회를 개최키로 했다.

강원 순회강의는 삼선승가대학의 경우 이달 27일까지 불교학개론에 대한 강의를 마친 뒤 11월 18~11월 25일까지 유식과 불교인도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봉녕사 순회강의는 11월중에 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겠네

진각종 내년예산 1백75억 확정

진각종 내년도 예산이 175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휴명)는 20일 제327회 정기종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통리원 교육원 등 각부 예산을 심의, 지난해 보다 11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175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올해 추경예산 5억5천만원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내년도 통리원 예산은 129억 9천3백만원, 교육원은 8억7천2백만원, 제시(스승들의 후생사업에 쓰는 예산) 7억1천2백만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피면 △관리운영 19억3천만원 △문화관리 7억3천4백만원 △포교관리 6억7천8백만원 △건설수리 13억원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관련 사무국 예산 2억4천2백만원 등이며 교육원은 △관리운영 9천5백만원 △교법사업 3억2천3백만원 △교육사업 1억8천7백만원 등이다. 이경숙 기자

불교유아교육과 단과제 요구

동국대 재학생 '불교아동과'와 병립안 반대

동국대 유아교육학과 신설에 대해 일부 졸업 및 재학생 스님들이 '불교' 자를 떼었다는 항의에 학교 측이 불교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양립체제를 발표하자, 이번엔 불교아동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양립 불가론을 내세우고 나섰다.

불교아동학과 180여 재학생들은 10월 24일 서울캠퍼스로 상경 총장 면담과 집회를 갖고 불교아동학과·유아교육학과 양립 반대를 천명하고 '불교유아교육학과' 단일과 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올해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내년에 최선을 다해 불교유아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두개 과의 양립은 불교아동학과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불교유아교육학과로의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동국대 발전·예산안 요구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2일 제 35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대에 학교발전안, 올해 결산자료,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선근 법인사무처장을 불러 보고를 받은 뒤, 동국대가 9월 24일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재정안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소청심사위장 청우스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청우스님(등명낙가사 주지)을 선출했다.

위원장 청우스님은 "소청심사를 활성화 하여, 종단에서 억울하게 징계 받은 스님들의 구제에 노력하겠다"며 "사면 건은 종회에서 먼저 선결처리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98년 사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통도사 종회의원 초현스님



통도사는 17일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종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한 초현(超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초현스님은 75년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90년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을 수료했다. 83년 95년 통도사 교무국장, 95년 양산 청소년 교화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봉장학회 이사와 학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봉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대구포교당 금강삼매원

축

삼존불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향기 구름으로 도량을 장엄하니
여래께서 오색(五色)광명의 우담바라를 피우시도다
법륜을 굴리시매 삼신이 광명속에 현출하사오니
삼계의 중생이 모두 이익하오며
원수거나 친한이나
두루 보리심을 내어지이다!

- 금강삼매원 - 성호 삼배

일시 : 불기 2545(2001)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0의 3 (달성네거리)
전화 : (053)561-4714

목어

'無有 恐怖'



'나는 벌 같은 존재일까? 파리 같은 존재일까? 광수생각'

며칠 전 한 일간신문 한 켯 만화에 실린 글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한번 생각케 해 준다. 방안에 들어 온 벌 한 마리를 보고 공포에 질려 온갖 살충제를 뿌려 그 벌을 죽였는데 '침을 지니지 않은 파리를 보고도 이랬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파리라면 성가시긴 하겠지만 살의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벌이라 해서 반드시 침으로 사람을 찌르지는 않을 것인데…. 하지만 바로 그 무기, 그 침이 상대의 살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모든 살의의 저변에는 이 같은 상대에 대한 공포가 있다.

심리학에선 태생적 공포감은 없다 한다. 갓난 아기는 호랑이나 불 죽음 등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는 학습된 것이며 이 같은 공포감은 한편 '위험을 경고해 주는 생존의 필수적 방어체계'의 하나가 된다. 우리 뇌의 뇌편도(Amygdala)가 그 학습된 공포를 조절한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공포는 테러다. 미국에 대한 자살 비행기 테러, 탄저병 등 생화학 테러는 그야말로 지금 미국을 '떨게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는 폭탄과 미사일은 파리 아닌 벌에게 마구 살충제를 뿌려대는 심리 저변과 같은 공포의 반사작용일 것이다.

학습된 공포가 비록 생존의 필수적인 방어체계라 하더라도 또한 통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불경은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의 '무유공포'가 그것이다. 반야심경 수지독송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은 '공포가 없어지는 경지'가 아닌가. 그러면 왜 불경은 공포를 극복하라 하는가. 공포는 한편으로 탐진치의 튼튼한 방어체계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의 평화는 '공포'를 연구하고 '공포'를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해 나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창종정신 되살려 생활불교 확산"

인터뷰 진각종 제9대 총인 혜일 종사

19일 만장일치로 불교진각종 제9대 총인에 추대된 혜일(慧一) 종사는 지난 59년 진각종에 입문한 이후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 통리원장과 종의회 의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종조 회당대종사의 법통과 수행가풍을 그대로 이은 원로스승으로 종단내외에서 폭넓게 존경을 받아왔다. 다음은 23일 오후, 주석하고 있는 강남 행원심인당에서 혜일 총인과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총인께서는 종조 회당대종사를 가장 가깝게 모셨던 제자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이 회당대종사의 탄생 1백주년으로 많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창교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요?

"종조의 창교 이념은 '밀교중흥,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心印)현현'입니다. 이 창교이념을 구심점 삼아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현세정화를 실천해 가야지요. 오늘날 인류는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한편 정신적인 빈곤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빈곤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해지고 갈등과 불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종조께서 가르치신대로 '현세정화 광제중생'을 충실히 해 나가면 됩니다.

창종 당시는 회당종조의 가르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또 실천, 확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운이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력을 주어 재건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었습니다.

또 당시는 진각종이 자성일마다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불법을 전파하여 다른 종단에서도 그러한 방법과 원력을 배워갔습니다. 따라서 진각종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 되었지요. 현재도 이러한 의식과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조 탄생100주년을 맞아 벌이는 각종 기념행사는 모두, 불법을 우리 사회에 확신시키자는 의미에서, 현재의 모든 것을 재조명하여 힘찬 도약을 재다짐하자는 불사입니다.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의미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각종 현안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교법의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체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교수행의 명확한 체계를 세워 놓으면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들여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단 내부적으로 축적된 힘이 바깥으로 확산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요익중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진각종의 교리를 널리 펴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수행은 실천입니다. 요즘 진각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복지 사업이 그러한 실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종단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교직자들이 뜻을 모아 문제점을 극복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조께서는 망어를 경계하셨고 행동의 진실과 마음의 진실을 강조하셨지요. 이를 삼밀수행이라고 하는데 불자라면 이 세가지를 늘 경책하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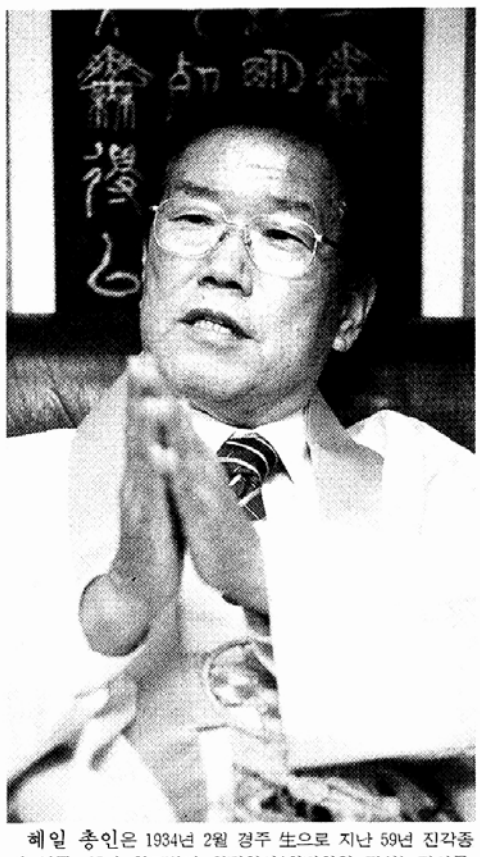
"요새 우리 나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지난날 분수에 넘친 행동을 한 자업자득이지요. 누구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하는 자성분위기면 화합이 되고 극복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2~3시간동안 개명신공을 드리고 낮과 저녁에도 정진을 합니다. '처처불공, 시시불공'의 마음으로 수행하지요."

이경숙 기자

"밀교 수행체계 구체적 정립"
"교육 · 복지불사로 사회 회향"



혜일 총인은 1934년 2월 경주 生으로 지난 59년 진각종에 입문, 65년 학교법인 위덕학사(회당학원 전신) 감사를, 68년 제3대 종의회 사무처장, 76년 종의회 의원을 지냈다. 밀각심인당, 탑주심인당, 행원심인당 주교를 지냈고 통리원 기획부장, 총무부장과 제15, 18, 19, 22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87년에는 4성지건립추진위원, 94년 종사에 품수됐으며 지난 95년에 9대 종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97년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2000년 인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불교학술 가을행사 '풍성'

주제 다양… 불교학 지평 넓어질 듯

올 가을 불교학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을 틈이 없다. 예년에 비해 불교학 관련 학술 세미나가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참조)

달마다 정기 학술발표회를 갖는 보조사상연구원,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외에도 학술 단체들의 정기 학술대회, 지역문화와 불교, 현대 사회문제와 불교 등 주제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 같이 양적으로 늘어난 학술세미나는 불교학 발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불교학 연구인력이 한정된 현실에서 학술 세미나의 홍수가 오히려 논문의 완성도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01년 11월 불교 학술 세미나 일정

단 체	주 제	날 짜	장 소	연 락 처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의 불교문화	11월 8일	원주 구룡사	(33)732-4800
불교어문학회	불교문학과 경주	11월 10일	경주 기림사	(054)770-2119
불교학연구회	가을학술발표회	11월 10~11일	안동 국악진흥원	(02)2260-3128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회복지정책에서 차별과 배제	11월 15일	동 문화원교육실	(02)736-6940
회당학회	진각논문 대상 논문발표회	11월 15일	진각종 교육원	(02)913-0133
천태불교문화연구원	대각국사 의천과 동아시아불교	11월 16일	관문사 옥불보전	(02)3460-5321
한국선학회	정기월례발표회	11월 1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2260-3135
한국불교문화원	추계학술대회	11월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02)2260-3121
불교포럼	타종교와의 대화	11월 28일	동산불교회관	(02)725-4282
보조사상연구원	구산장학회 발표회	11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733-5315
불교문화연구원	신라불교와 장보고	11월 27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02)2260-8507
인도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12월 초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2260-3123

폐원 위기 놓인 승가대 보육교육원

환경 열악 · 홍보 부족 '원인'

학교 · 종단 대책세워야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데에는 학교 측의 책임이 크다. 운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육생 감소는 홍보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방치, 행정적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

단적으로 20년이 넘은 건물에, 비좁은 강의실과 노후된 기자재로는 신입생 감소를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또 보육교사교육원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실장이 9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바뀌었으니,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했다. 책임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신입생 선발에 따른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 졸업생들로부터 "보육교사교육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그러다보니 서울시내 30여 곳에 이르는 다른 대학의 보육교사교육원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신입생 감소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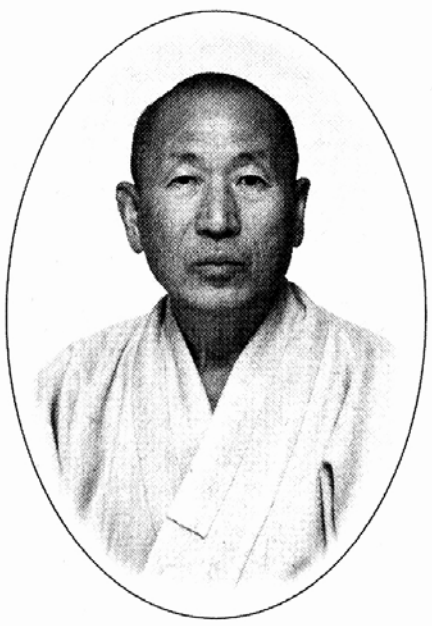
문제는 정상화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번 재학생이 졸업하는 2월까지 최소한 4천여만원이 더 필요하나 조달할 방법이 없다. 학교법인 이사장 정대 스님이 학교 발전기금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의사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전 문제도 다음달 초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모집요강을 확정해 홍보하는데도 무리가 따를 것이 분명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립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중앙승가대, 총무원 측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보육교사교육원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호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奉 보덕선원 밀운대선사 조실 취임 대법회 祝

밀운 큰스님을 모시고 동안거결제에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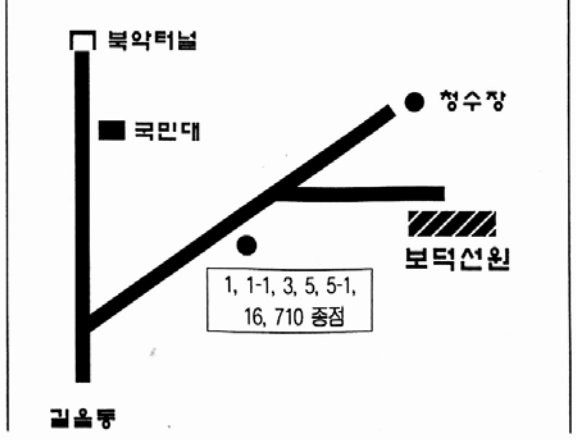
밀운대선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11월 15일 (음력 10월 1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찾아 오시는 길



일주문



법계고시위원장에

보성 송광사 방장은 22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법계고시위원회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봉사부문 '효령대상' 수상

각현 (사)연꽃마을 대표이사 스님은 2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봉사부문 '효령대상'을 수상했다.



보덕선원 조실에 추대

밀운 봉선사 회주는 11월 15일 서울 정릉 보덕선원(주지 오본)에서 보덕선원 조실에 추대된다. (02)914-4235



日 장례문화 현장답사

도업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장은 일본 장례문화 현장 답사를 위해 18~21일 오사카, 나라, 교토를 방문했다.



생활도량 광운사 개원

청운 서울 불광동 광운정사 주지는 28일 강원도 홍천에 불자 공동 생활도량 광운사를 열고 개원 기념 법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정여 개금사회복지관장은 16일 부산시 주최 제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불교와 교육' 특강

이양길 김천지역 바른교육시민연대공동대표는 16일 시내 초중고 학부모 200여명을 초청해 '불교와 교육'을 특강했다.



달라이라마 방한줏서 감사패

김원웅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광부 종무1과장 위옥환 씨



문화관광부는 23일 불교와 유교, 민족종교 등을 관장하는 종무1과장에 위옥환(52)씨를 임명했다. 위과장은 "우리사회에서 종교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위옥환 과장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관광국 관광개발과장을 거쳤다.

조계종 원장실 한글대장경 봉안

동국역경원 기증… 동국대 이사장·총장실도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과 동국대 이사장, 동국대 총장실에 장경각이 각각 설치돼 한글대장경이 봉안됐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한글대장경 완간을 기념해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총장에게 한글대장경(전 319권)을 기증했다.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일면 스님(봉선사 주지·한글대장경완간기념대법회 집행위원장)은 "종단과 정부, 그리고 많은 불자들의 성원과 후원에 힘입어 37년 대작불사가 회향되었다"며 "그간 역경불사를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전산화 작업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한글대장경 및 장경각 기증서를 전달(사진)했다. 김원우 기자

"읽고 나면 누구라도 의식집전 가능"

'승가의범' 펴낸 홍원사 회주 원명 스님



"현재 시중에 많은 의식집이 나와있으나 내용이 부실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초보자가 배우고 집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많습니다."

서울 홍원사 회주 원명 스님이 조계종 행자교육원과 강원에서 기초의식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불교 의식집인 〈승가의범〉을 출간했다. "대다수 스님들이 의식 내용을 외우지 못해 의식집을 펴놓고 집전하지만, 순서를 찾기도 어렵고 통합적인 표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명 스님은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의식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반의식에 뛰어난 故 송암, 벽응 스님의 자문과 제방 강주스님들의 교열 교정을 받고, 목판본 및 석문의범과 전통의식에 준해 탈자와 오자를 가려내는데 걸린 시간은 수년. 여러 스님들의 재촉에 우선 도량석, 종송, 각단 예경과 불공시식만을 간추려 160쪽 분량의 책자로 발간했다. 이 의식집이 기존의 것과 다른 점은 각종 의식을 선후 순서대로 편집, 집전 순서에 대한 설명과 중요 부분의 주를 달아 초보자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원명 스님은 "이 한 권의 책이 여법한 의식집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종합 의식집을 내년 봄에 출간, 종단의 공식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은 비매품으로 보급된다. (02)822-199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광덕 대선사 행적비·부도 제막식

금하당 광덕 대선사 행적비 및 부도 제막식이 21일 출가본사인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됐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2천5백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장소개, 분향 헌화, 추모사, 법어, 비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광덕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땅에 바라밀 국토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봉은사 보우제 정대불사 봉행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25일 대웅전 앞에서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제9회 보우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정대불사에서 불자들은 경판과 책 등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돌며 신심을 높였다. 법계도를 따라 도량을 돈 불자들은 경판을 소금물로 씻는 행사를 통해 경판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보명사 화천 붕어섬서 가을 방생

서울 관악구 보명사(주지 상원)는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소재 붕어섬에서 지장사 주지 대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가을 방생법회를 가졌다.

이번 방생법회에서는 특히 들판에서 하던 여느 방생법회와는 달리 소형 괘불탱화를 모시고 여법하게 법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법연사 경주불교수련원 개원법회

(사)법연원 법연사(주지 조연)는 19일 대각사 주지 홍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불교수련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대지 4천평 건평 2천3백평 규모의 경주불교수련원은 각종 연수회, 기도회, 수련회장으로 쓰이게 된다.

포교사단 2대 단장

김대중 씨

"수행하는 포교사像 심겠어요"



조계종 포교사단은 24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 35명 만장일치로 제2대 단장에 선출된 김대중(64) 부단장.

지금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한 만큼 이제는 포교사단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9년 3월 출범해 회원 수 1600여 명의 규모의 포교단체로 성장하기까지의 지난 2년동안 조직 확장과 정비에 전력을 쏟았다면, 이제는 포교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포교사단 중흥의 관건이라고 김 단장은 강조했다. 김 단장이 말하는 포교의 질 함양은 포교사들의 자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자신이 먼저 수행에 열심이어야 포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교는 지식보다는 인격과 불심이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 단장은 92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고, 포교사단이 출범하면서 부단장과 포교사단내 군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군4팀 팀장을 맡아오는 등 1인 3역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포교사단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하부조직이 근간입니다. 바로 이 특성을 살리는 것이 포교사단의 발전과 직결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밝힐 예정입니다."

조계사 신도이기도 한 김 단장은 대위로 예편해 지금까지 개인사업을 해 왔으며, 현재는 이동통신 부품 제조회사인 '한국H&S'를 운영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인재양성·종무혁신 산실로 육성"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참여불교재가연대가 2년여 준비 끝에 사찰과 교단의 현대화를 목표로 31일 개원하는 '불교아카데미'의 이사장을 맡은 윤천수(54,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씨는 "불교아카데미를 21세기 종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첫 사업으로 '21세기 사찰모형탐구'라는 제1기 경영관리자 과정을 오는 11월 22일부터 사흘간 개설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사흘간은 종교문화탐구의 첫 강좌로 '이슬람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슬람과 불교 문화간 이해와 소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제1기 불교 실무인력 양성 인턴 십 과정을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설하며, 2월 20일부터 2개월간은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불교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사상강좌도 마련한다.

윤 이사장은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루나, 우팔리 기금 마련에 주력하고 31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기로 했다. 설법제일의 10대제자인 부루나를 본딴 부루나기금은 종무혁신을 위한 관리자 양성교육과 전봉강원교육의 현대화 지원에 쓰인다. 또 계율제일 우팔리를 본딴 우팔리 기금은 교단부패 방지를 위한 회계전문가 양성과 스님 노후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윤 이사장은 건국대 법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77년부터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다. 96년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92년 동국대불교대학원 제1기 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용히 신행을 펼쳐왔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제1차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기관 관리(Management)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차 학술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원장 이 혜총

◇ 일 시 : 2001년 11월 9일(금) 오후 1시 ~ 오후 5시 ◇ 장 소 : 부산일보 대강당 (10층)
◇ 주 제 : 불교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기관 관리 전략
◇ 주 최 :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 후 원 : 보건복지부, 동국대학교,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증지종사회복지재단,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부산문화방송, KBS부산방송국, PSB부산방송, BBS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젼
◇ 세미나 일정
– 등 록 : 13 : 00 ~ 13 : 30
– 제1부 : 개회식 – 13:30 ~ 14:00
개회사 / 경과보고 / 인사말 / 축사(송산스님)
– 제2부 :
▣ 주제발표 및 토론 : 14 : 00 ~ 16 : 30
발 표 주 제 : 불교사회복지의 방향
발 표 : 이 혜 총 스님(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원장)
▣ 제1연구발표
발 표 주 제 : 사회복지기관의 TQM 진단평가를 통한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사 회 : 류 기 형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 박 경 일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 김 영 종 교수(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제2연구발표
발 표 주 제 :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스타일 진단을 통한 임파워먼트 실현방안
사 회 : 조 경 현 회장(부산사회복지사협회)
발 표 : 이 명 현 교수(양산대학 사회복지보육과)
토 론 : 양 정 하 교수(경남정보대학 사회복지과)
▣ 제3연구발표
발 표 주 제 : 사회복지관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적용사례연구
사 회 : 이 종 선 지사장(ISO인증기관 영국NQA한국지사)
발 표 : 박 남 철 부장(두송종합사회복지관)
토 론 : 이 범 산 관장(양정청소년수련관)
▣ 종 합 토 론 : 김용택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 한 불 교 사 회 복 지 연 구 원
The Korean Buddhist Social Welfare Institut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번지 부산불교회관 3층
☎.(051) 868-0951 Fax(051) 868-1258 http : //kbswi.bulgukto.or.kr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우리 모임에선

성북사무소 도피안사 순례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24~25일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에서 '환경과 평화'를 주제로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에 동참한 회원 및 가족 80여 명은 108배와 참선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청정도량을 지키기 위해 불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하이텔 백제법회 참회정진

하이텔불교동호회의 전남 · 북 및 제주지역 모임인 백제법회는 21일 모악산 금산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오현정, 박정선 등 20여 지역 회원은 이날 금산사 미륵전 연화대에서 참회기도와 발원문을 낭독하며 신심을 다졌다. 또한 목포 칠장사 조실 불연스님을 친견했다.

경산조폐창 서예전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25~29일 경산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부처님 말씀 모음 서예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조폐창 불자회 산하 서도회의 지도작가인 정태재 선생과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에 앞서 금강회는 24일 금강원에서 법회를 열고 금강원 주지 증악스님의 '금강경' 법문을 들었다.

춘천 정신병원 천수경 독송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는 24일 병원 내 소극장에서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5명의 회원들은 이날 예불문과 천수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졌다. 또한 28일 강화도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백련장학회 교도대 위문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는 24일 오후 4~8시 영등포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 위문 공연을 실시했다. 150여 경비교도대원들이 모인 이날 위문 공연은 KBS 개그맨 성창수 씨의 사회로 송춘희, 오은주, 남수란, 신우진, 박경진 씨 등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의 열창과 교도대원들의 장기자랑으로 진행됐다. 백련장학회 회원들은 손수 장만한 음식을 교도대원들에게 나눠주며 위로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침체됐던 전력인 불심 다시 켜자"

발전회사 등 분사이후 첫 연합법회

17개지회 150명 1080배 · 참선 정진

회장단 회의 정례화…년 4회 합동법회



◇전력인 불자연합회가 20~21일 은해사에서 지난 4월 분사 이후 첫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더욱 신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력인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원력을 주십시오." 150여 전력인 불자들은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이렇게 발원하며 더욱 신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4월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사(分社)돼 신행 활동의 위기를 맞았던 전력인 불자들이 20~21일 이곳에서 분사 이후 처음으로 연합법회를 가졌다.

연합법회는 본사반야회, 전력연구원반야회, 월성원자력반야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울진원자력 문수회 등 17개 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후 7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1080배, 참선정진에 이어 21일 연합법회로 진행됐다.

이중 부모의 지도와 격려를 받으며 1080배를 해내는 회원 자녀들과 참선삼매에 빠진 채 온 밤을 꼬박 보낸 회원 부부들의 모습은, 전력인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은해사 뒤편에 있는 팔공산 등산로를 걸으며 전력인불자연합회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을 찾을 수 있었다.

연합법회는 참선실수, 법문, 각 사업장별 상견례, 월성 ·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모범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월성원자력반야회는 지역 전통사찰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문화재 해설사'라는 독특한 신행 활동을 발표해 주목됐다. 삼천포화력 반야회와 울진원자력 문수회는 지역 사찰인 운흥사와 불영사와 연계한 신행 사례도 전력인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전력인불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는 분사 이후 침체된 전력인 불자들의 불심을 다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회 회장단 모임의 정례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력인불자연합회는 내년 3월 전력연구원 반야회와 울진원자력 문수회에서 연합법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년 4회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연합법회는 각 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준비한다. 또한 전국 17개 지회 회장단 회의를 격월로 시행할 방침을 세웠고, 내년 5월 초파일을 맞아 '꼬마 연등'도 제작한다.

전력인 불자들은 연합법회 회향식과 함께 경비의 일부를 모아 북한 사리원금강국수공장에 후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서울 남부서 경불회 7일 창립

회장 이태희씨…청소년 · 노인복지 주력



서울 남부경찰서 경찰불자회(회장 이태희 · 사진)가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남부서 3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도 법사 원육스님(관악산 호압사 주지)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이날 창립법회에는 남부서 150여 경찰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 등 4명의 경찰 불자들이 경불회 창립을 서원한지 1년만에 일궈낸 성과다. 이를 위해 이 회장 등은 등산, 축구대회와 같은 남부서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동료들의 종교를 파악하고 경불회 창립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봉사하는 경불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 노인 복지에 원력을 쏟고 있는 원육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 회장은 "정기 법회와 교리 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진 다음, 남부서에 경승실을 설치하는 일과 지역 사회봉사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성경찰서 유마회는 30일 '경승실 개원 및 불상봉안 법회'를 봉행하고, 제 2도약을 서원했다. 유마회 김덕영 회장은 "회원 모두 경찰서 안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다양한 신행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마회는 99년 4월 결성됐지만, 경승실이 비좁고 부처님 또한 봉안하지 못해 원활한 신행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오종욱 기자



◇교사불자련은 20~21일 감사에서 운영위원 연합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지 발간등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청소년 포교지 '좋은 친구' 재발간

교사불자련 임원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21일 계룡산 갑사에서 운영위원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연합법회에 동참한 40여 운영위원들은 108배와 참선, 아침예불로 신심을 다지고,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2002년도 사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교사불자련은 2002년 1월 5~7일 통도사에서 겨울수련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포교지 〈좋은친구〉 4집을 발행키로 했다. 1998년 가을호로 시작한 〈좋은친구〉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지로 활용되면서 호응을 얻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2000년 여름호를 끝으로 중단됐다. 출판비용은 서울 · 경기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하장 판매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 회장인 임완숙 씨가 회장에 재임됐고, 부회장, 감사 등도 새로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오종욱 기자



불기협 와우정사서 연수교육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직대 이재우)는 20~21일 열반종 총본산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에서 가을 정기연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3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언론과 기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한겨레신문 손석춘 여론매체부장의 특강 등이 마련됐다.

부산철도 정비창 불자회 탄생

회장 최비석씨



철도청에 또 하나의 법등이 밝혀졌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회장 최비석 · 사진)가 27일 정비창 내 복지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혜종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부산불교교육대학 이하우 학장 등 3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70여 회원들은 철도인 불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어 불자회는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교육 등의 신행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불자회는 회원 중에서 전기나 기계를 다루는 기능인이 많다는 점에 주목, 지역사회의 복지과의 시설 관리 봉사에 원력을 쏟을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성직자 친선 축구대회=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서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성직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는 스님, 목사, 신부팀의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02)735-5864

▲봉선사 홈페이지 오픈=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가 홈페이지를 오픈,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봉선사와 광동학원 산하 중 ·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및 교법사, 경희대학교 불교학생회 등의 활동을 열람할 수 있다. www.bongsunsa.net

▲불교만화공모전=불교만화연구소는 교계 최초로 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작 만화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만화 작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053)474-0344

모집

▲노인학교 강사=안양노인복지센터는 해울학교 강사를 모집한다. 해울학교는 노인들의 학습, 취미, 여가, 건강 등을 돕는 노인학교. (031)455-0551

▲중고가구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문화센터에서 이용할 TV, 복사기, 파티션, 쇼파, 냉장고 등의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무료 영화 상영회=영주사회복지관은 11월 1일 복지관 강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 영하는 '마이티'. (054)633-6419

▲여성장애인 모집=강북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 모임인 '빛이되는 사람들'에 동참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을 모집한다. (02)989-4218

▲나들이 용품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나들이 후원품을 모집한다. 후원품은 후원금을 비롯해 과자, 음료수, 내의 등. (02)2203-3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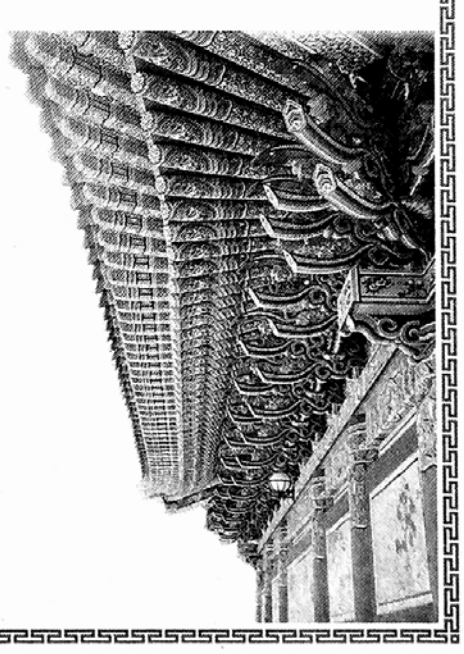
▲이 · 미용 자원봉사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이 · 미용 자원봉사원을 모집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봉사는 월 1회 4시간 실시된다. (02)265-9471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봐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심심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현대불교 THE KYUNDAE BULKYO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태 끼고 뒤틀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부처님이 계셨을때 시멘트가 있었다면?





시멘트법당의 대명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0-29
대표전화:02)494-4890-1

설계에서↔시공까지
사업안내 :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

"경전서 배운 가르침 생활속 실천"

신행현장

라이코스 불교동호회의 활동

부산시 서면, 번화가에 마련된 라이코스 불교동우회 '연꽃 핀 천불정사(http://club.lycos.co.kr/bud10000)' 사무실에 들어서면 도심의 번잡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24일 수요일은 연꽃 핀 천불정사의 경전 윤독 모임이 있는 날. 천불정사 공부방에 모인 회원들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 〈잡아함경〉 공부에 푹 빠져 있었다. 천리안 불교동우회 부산경남방에서 활동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경전 강독 모임을 이어온 이들이 보다 진전된 공부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해 라이코스로 동아리방을 옮긴지도 어느덧 1년이 됐다. 20~40세까지 89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꽃 핀 천불정사는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주소를 가진 모임이 되었다.

경전공부를 지도하고 있던 김준오(35 · 부산대 철학과 강사) 회원은 "경전 강독이야말로 불법의 핵심이 담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이라며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행활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개인적 성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말했다. 3년 전부터 불교입문서와 경전을 강독하며 실천의 준거와 힘을 비축해 온 연꽃 핀 천불정사는 이미 〈백문백답〉, 〈바웃드하〉,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등의 입문서와 〈숫타니파타〉 강독을 마치고 현재는 한역본 〈잡아함경〉을 강독중이다. 지역적 한계로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도 매주 월요일마다 온라인상의 '정팅'을 통해 경전 강독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정종삼(사업) 시숍은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하나 하나 해결하게 되니 실천행이 절로 따라오게 되더라"고 토로했다. 뜻도 모르고 외던 예불문, 천수경 등 경전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환희심이 일어나 저절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꽃 핀 천불정사는 그간의 경전 강독을 통해 체득한 가르침을 삼랑진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 양로원 방문, 사찰문화답사, 천 배 정진 등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전공부
함께 모여 봉사활동도
정기적 사찰문화 답사
불교이해 길잡이 '톡톡'



◇라이코스 불교동호회 연꽃핀 천불정사 회원들이 24일 경전윤독모임을 하고 있다.

특히 사찰문화답사는 천불정사가 특별히 공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답사에서 탈피, 불교예술과 불교의 역사 및 불교 문화의 숨결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도록 자료 준비가 철저하다. 또한 사이버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화합의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조용재(40)회원은 실천에서 단연 돋보인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평화의 마을 봉사에 참석해 풀뽑기, 밭갈기, 추수하기 등에 땀을 흘리고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한 심리상담과정에도 열성이다 . "경전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 뿐"이라는 조회원의 말은 달동네 야간학교 운영, 불교시민운동 등 연꽃 핀 천불정사 장기 활동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지난해 소년소녀가장인 현수의 생활비를 보조한 것이나 회원들이 돌아가며 현수의 학습지도를 한 것, 현재 또 다른 행을 위해 회비를 적립하는 것 모두가 사회의 어둡고 힘든 곳에서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회원들의 맑은 정진인 것이다. '사십이장경'을 번역 입력해 놓은 연꽃 핀 천불정사는 인터넷상의 자료실 기능도 톡톡히 한다. 매년 청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전을 재해석해서 입력하는 것을 공부의 회향으로 삼으며 꾸준히 경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공간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가족 같은 따뜻함으로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도반이 되었다"는 회원 모두는 "사이버와 현실세계 곳곳에 연꽃의 향기를 두루 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하며 환한 웃음을 나누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이 된다. 위대한 일이란 단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진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극히 드물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번듯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선호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명성 · 평판 · 칭찬 · 영광 따위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건 아상(我相)이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자기 사랑이 배어 있는 탓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나'가 개입되면 이미 집착하고 있음이다. 무엇을 구하고 지키려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어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에 반연하지 않는 도(道)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물같이 살고 바람 같이 살라 함에 맞는다 하겠는가.

양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전국에 절 짓고 탑 세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달마의 대답은 '무'였다. '내가 했노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붙어 있는 한 아무리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했다 해도 공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럴진대 내게 큰 일을 할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공덕을 말하기 전에 어리석음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또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계행에서 조차도 '한 사이 없이'하라고 가르친다. 내가 했노라, 내가 주었노라는 자기사랑이 완전히 표백된, 순수함 그 자체로 오직 행동하라고 한다.

일부러 천해지겠다, 버리겠다, 낮아지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주어진 일, 다가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는 것, 보답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 자세가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보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위대한 일, 훌륭한 공덕이란 바로 그런 일들이 합쳐진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내 자식만 합격' 기원 참다운 기도 아니니다



성원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요즘처럼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룬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게는 일일기도에서부터 크게는 1천일 또는 1년 기도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기도의 명칭도 다른 입시기도가 사찰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입시기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어느 종교든 간에 모두 기도라 하여 신자가 자신의 바람을 절대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절대자의 은총을 베풀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입시기도나 부적보다
구병시식 권했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기도란 본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기도란 기도를 하는 사람 스스로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 · 보살님께 무조건적인 가피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기원보다도 발원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무작정 절대자에게 바란다는 측면보다도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떠어떠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방법 또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단 하나의 발원을 세운 다음에 염불이나 절, 진언, 독경, 사경 등을 통해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시기도 문화는 어떠한지 반성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입시기도는 곧 고3수험생을 위한 기도라 할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가정에서 하는 기도로 굳어 있습니다. 1 · 2학년 때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버려 두다가 3학년이 되서야 기도를 합니다. 이 때만 되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불안감만 더해지고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만'이라는 '만만주의' 기도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님들도 진정으로 신도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기도자 아닌 상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격을 위해 최선의 상담을 해주고, 시험 이후에는 합격 불합격자 모두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부적 문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부적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부적이 바닥이 나 부적을 만드는 곳은 불야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사찰도 이맘때가 되면 입시부적을 찾는 신도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전화로 문의하는 신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원한다면 구병시식을 권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기도입니다. 수험생이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내 자녀만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면 더욱 좋습니다. 같은 여건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 형성되고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할 때 기도는 참다운 공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행캘린더

11월 1일 (목)

■풍경소리 전시회=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11월 3일까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풍경' 전시회를 개최한다. (02)736-5583

11월 3일 (토)

■대둔사 초의문화제=전남 해남 대둔사는 오전 9시 30분 초의관과 일지암에서 '제10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어 4일에는 '불자 한마음 정진대회'도 마련한다. (061)534-5502

■갑사 영규대사 추모재=계룡산 갑사는 11월 4일까지 경내에서 '민족의 번영과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창건 1581주년 개산대재 및 영규대사 순국 409주년 추모재'를 봉행한다. (041)857-8981

■선우 명상수행 특강=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 30분 선우법당에서 '명상수행'을 주제로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의 특강을 마련한다. (02)2278-8972

11월 4일 (일)

■청소년축제한마당=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제5회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백일장, 사생대회, 댄스경연대회, 인터넷게임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051)405-5233

■태고학회 학술회의=태고학회는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02)904-0081

■관세음보살 봉안법회=전남 고흥 정각사는 오전 10시 '사십이수 십일면 청동관세음보살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방장 월하,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동참한다. (061)835-2879

11월 5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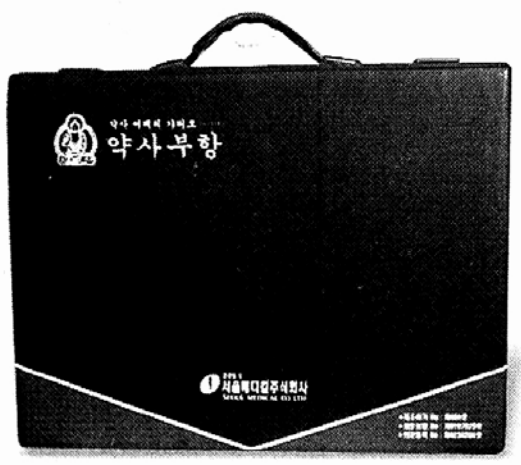
■성철스님 추모법회 회향식=해인사 백련암은 오전 7시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회향한다. (055)932-7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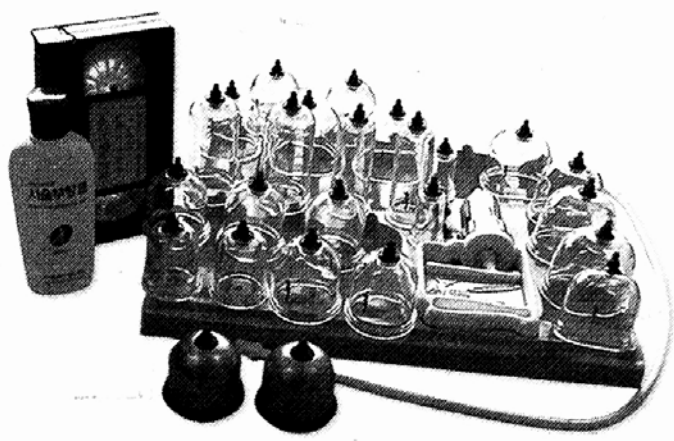
■구도회 <아함경> 강좌=서울 구도회는 오후 7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권기종 박사를 초청, 〈아함경〉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0203411-6167

11월 6일 (화)

■태고보우 추모다례제=경기도 양평 사나사는 오전 11시 경내에서 태고보우국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고, 국사 추대식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한다. 이어 2시부터 산사음악회도 마련한다. (031)772-5182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8.제바달다는 누구인가

제바달다는 불교의 역사에서 최대의 악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도저한 악인도, 온전한 선인도 되지 못하고 야누스적인 이면성을 걸머진 채 불교사 최대의 악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그의 숙업은 무겁고 가혹하다. 한역 불전은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부친인 정반왕의 동생, 감로반왕의 아들로서 아난다의 형이다. 사촌인 석존보다도 20세 아래이며 석존의 성도 후 6년째 되는 해에 불교교단에 출가하여 12년간 수행하였으며 송경과 좌선에 게으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석존의 지위 계승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점차 악심이 생겼으며 장로들이 제바달다에게 신통력을 전수하기를 거부하자 6사외도 가운데 한 사람인 프라나 카샤파에게 접근하여 신력통을 배웠다. 그 후로 신통력을 이용하여 아자타삿투 태자에게 접근하여 점차 세력을 키웠다.

제바달다는 석존께 교단의 지도권을 물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석존은 "그대보다 뛰어난 사리불과 가

이단적 수행자와 악인의 두 얼굴

섭이 있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제바달다는 빔비사라왕의 아들 아자타삿투와 결탁하여 "서로 새 왕과 새 부처님"이 되자고 공모하고 아자타삿투를 사주하여 빔비사라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았으며 석존을 해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바로 정토경전 〈관무량수경〉의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제바달다는 5법을 제시하여 교단의 계율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단은 분열되었으며, 연화색 비구니를 살해하였고, 자신이 바로 붓다라고 사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불전은 제바달다를 5역의 대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바달다는 초기불교교단을 분열시켰고 상당히 많은 비구들이 그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예증으로서 〈십송율〉권36에서는 5백명의 비구가 제바달다파에 가담했다가 제바달다의 사후, 사리불과 목건련의 인도로 다시 불교교단으로 돌아왔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제바달다파의 명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약 1천년간 독자적인 경전과 예배 형태, 사원을 유지하면서 존재해왔다. 즉 5세기의 법현(法顯)과 7세기의 현장(602~664)은 자신들의 인도여행기에서 제바달다 교단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399년부터 13년간 인도를 여행한 법현은 중인도에서 목격한 제바달다의 교단에 대해서 "조달 또한 대중들이 있어서 항상 과거 3불께 공양 올리지만 오직 석가문불께는 공양하지 않는다"라고 〈법현전〉에 적고 있으며, 627~645년간 인도를 여행하며 유학한 현장은 〈대당서역기〉권10에서 "카르나수바르나국에는… 별도의 세 가람이 있는데 우유제품을 입에 대지 않고 제바달다의 유훈을 따르고 있다"고 적는다. 또한 의정(635~713)은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권9에서 당시 인도에서의 제바달다파의 생활과 불교교단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신이 수학하던 나란타사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제바달다파와 나누었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처럼 제바달다파는 1천 여년 이상 불교교단과 함께 공존했던 것이다. 제바달다는 붓다의 근친자로서 교단을 분열시킬 정도로 강한 개성을 갖고 있었으며 붓다를 해치고자 한 악인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제바달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즉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어두운 면이 무겁게 투영된 악인의 모습과 반면 뛰어난 지성과 카리스마를 가진 이단적 수행자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바달다의 모습 또한 이 양면이 교차하면서 반역자, 악인으로 낙인찍힌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큰 정신은 악인 제바달다를 용서한다.

〈법화경〉 제바달다품 등 여러 대승경전에서는 제바달다는 "대법(大法)을 구하는 과거세의 석존을 지도한 대선지식이었으며 부처님은 제바달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불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무량겁이 지나면 제바달다 또한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내림으로서 제바달다를 용서하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바달다까지 용서함으로서 더욱 불교다운 자비의 이념을 철저한 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정성쌓인 이 공양 약 삼아 道 이루리

참불자의 길 — 먹는 일도 수행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일 이상이다. 그 자체로 '생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수행자에게는 일반인들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스님들이 식사할 때 행하는 식사법을 발우공양이라 하는 데, 이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다. 수행의 한 과정으로 행해지며 사찰에서는 필수다.

발우공양할 때 암송하는 〈소심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먹는 일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소심경〉에는 부처님을 회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 공경, 예배하는 마음과 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배고픈 중생들과 똑같이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소심경〉에 의한 발우공양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리에 앉은 다음 불은상기게(佛恩想起偈) 또는 회발게(回鉢偈)를 외운다. 이는 공양을 하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어 발우 펴는 게송인 전발게(展鉢偈)를 하고, 발우를 편 후 십념(十念)을 외운다. 음식을 다 받은 후에 양손으로 발우를 눈썹 위까지 올린 후 봉발게(奉鉢偈)하고 발우를 내려놓은 다음 "온갖 정성 두루 쌓인 이 공양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습니다.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며 도업을 이루고자 이제 먹습니다"는 내용의 오관게(五觀偈)를 외운다.

이어 헌식을 하며 출생게(出生偈)를 외우고 공양을 마치면 발우를 깨끗이 씻은 후 천수물을 앞에 놓고 절수게(折水偈)를 외운다. 끝으로 발우를 닦아 발우보로 묶고 다음과 같은 식필게(食畢偈)를 하는 것으로 공양을 마친다. "공양 들어 몸에 힘 가득히 차니 그 위엄 시방삼세 영웅이로다…."

일반 불자의 경우 수련회 등에 참가하면 이러한 대중 발우공양을 경험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발우공양 지도를 해 본 스님들은 여러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먹기 미안하다고 일을 돕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음식을 가까운 사람에게 덜어주는 행위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음식 씹는 소리를 내는 것 △너무

밥 한톨 버리지않는 발우공양 가정에서

빨리 먹거나 늦게 먹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 꼽는다.

하지만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불자들이 가정에서 〈소심경〉에 따라 발우공양을 하기란 쉽지 않다. 불자들의 경우, '맛을 탐닉하기 보다는 이로써 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또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음식을 부끄러움 없이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 깊이 반성해야 한다. 먹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문제는 '탐식'이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발우공양이다.

연간 8조원이 넘는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현실에서 보면 한 톨의 밥알까지도 헛되이 하지 않는 발우공양은 '보배'라고 할 정도로 환경·문화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

최근 들어 가족이 함께 발우공양을 하는 불자 가정들이 늘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에서 발우공양을 해 본 적이 없는 불자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준비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활용하고 의식도 가정에 맞게 간단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먹는 일을 도락으로만 여길 게 아니다. 수행과 기도의 연속으로 여기고 이를 실천할 때, 공양은 육체적 정신적 자양이 될 것이다.

김중근 기자



◇발우공양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다. 수행의 한 과정이다.

禪과 21세기 — '서장' 통한 선 공부 ㉟

증종승(曾宗丞)에 대한 답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속지 않을뿐

"다만 화두 위에서 살피십시오. 살피고 또 살피다가 잡을 곳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에 바로 힘을 써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좇아가지 마십시오. 다만 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답답한 곳이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어서 천하 사람들의 혀를 꺾어 버릴 곳입니다. 결코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선법(禪法)을 보통 간화선(看話禪)이라고 한다. 간화선이란 화두를 살피는 것을 선의 공부로 삼는다는 말이다. 간화선은 그 창시자가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인데, 바로 이 〈서장〉에서 자성(自性)을 깨달아 선문(禪門)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편으로 간화(看話) 즉 화두 살필 것을 주창했던 것이다.

화두란 공안(公案)이라고도 하며, 주로 선사들이 문답한 일화 가운데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말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삼는 것이다. '화두를 든다(擧話)' 혹은 '화두를 살핀다(看話)' 하는 말은 화두를 문제로 삼는다는 말이고, '화두 위에서 의심을 부순다(話頭上破疑)' 혹은 '화두를 깨닫는다(悟話)' 혹은 '화두를 뚫어낸다(透話)'는 말은 그 문제가 풀렸다는 말이다. 화두의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곧 화두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말이며, 화두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말은 곧 마음의 본성(本性)을 파악했다는 말이다.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어떤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두의 의미를 뜻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의 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화두를 뚫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두는 자성을 밝혀내는 방편인데, 자성은 오직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규정되거나 관념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두의 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가되, 생각나고 느껴지는 모든 답들을 물리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화두를 공부하는 바른 방법이다. 이런 의심을 오랫동안 놓지 않고 생각 물리치기를 계속하여 그 의심이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허물 허물 녹아 사라지고 마음은 의지할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하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라고 할 만한 존재도 없이 캄캄하고 깊은 골짜기 위에 위태하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런 곳에서 힘을 잃거나 돌아서지 말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면,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문득 광명이 모습을 드러내어 갑자기 의심이 사라지고 갑갑함이 사라지며 몸이 가볍게 된다.

이 때에는 가슴에서 숨길을 가로막고 걸려 있던 장애물이 떨어져나간 것처럼, 다만 상쾌하고 가벼울 뿐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슴 속에서 대립되고 쪼개져서 아픔을 주던 조각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듯 하고 마음은 텅 비어서 도무지 잡을 것이 없지만, 조금도 불안하거나 막막하지 않고 오히려 날아갈 듯이 상쾌할 뿐이다. 이 때까지 무거운 짐으로 매달려 있던 화두나 조사(祖師)의 말과 부처의 가르침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저 말끔할 뿐이다. 이제 화두는 뚫린 것이고 화두 위에서 의심이 부서진 것이다.

이 곳에서 보면 눈앞에 나타나는 형형색색의 사물과 다종다양한 일들이 빠짐없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고 하나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도 이 곳에서는 모두 녹아서 이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매사가 오직 이것의 활동일 뿐 다른 일이 없다. 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의 활동으로 살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지혜를 말하지도 않고, 중생과 부처를 말하지도 않으며,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속지 않을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악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향림 빌딩 2층 204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전 화 : 02) 679-5902
H·P : 011) 288-2944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 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大 힛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효과가 없을시 100%환불 보장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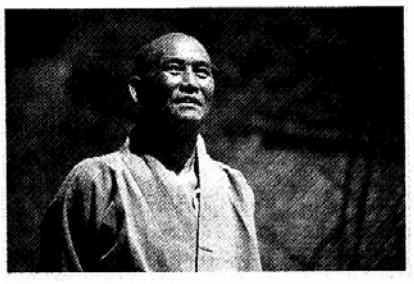
Tel.02]455-6944, 02]453-585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영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부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 상담문의 ☎ (02)3437-8282 ◑

이렇게 들었다

사형 폐지 촉구 문화제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부처님은 〈대방편불보은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같이, 온갖 삼계이십오유(三界二十五有)의 유형(有形)·무형(無形)·사족(四足)·다족(多足)과, 내지는 저 개미라 할지라도 생명을 지닌 것들은 다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게 된다해도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지 아니한다."

11월은 종교계가 정한 '사형 폐지 촉구의 달'이자 '생명문화 정착의 달'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교·개신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으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 범종교연합이 11월 한 달 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연다고 한다.

천주교 정평위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형반대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 다른 종교단체와 연대한 범종교연합을 구성한 이후 사형 폐지를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종교계 차원의 활동을 해왔다.

"사형은 형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범종교연합은 사형제도의 부조리와 반생명·반종교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마련했다.

11월 1일~10일까지 서울 명동 마루소극장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극제가 진행되고, 11월 7일~17일 서울 인사동 학고재 화랑에서는 서양화가 강익중, 판화가 남궁산 등 유명작가 29명이 참가하는 '생명으로의 초대전'이 열린다. 11월 11일에는 열린음악회 형식의 대규모 시민음악회 '그. 가. 떠. 날. 콘서트'가 KBS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 자리엔 김수환 추기경이 특별 출연해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문화 행사 외에 범종교연합은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일본·인도·대만·필리핀 등 아시아국가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제연대모임 '2001 사형 폐지 아시아포럼'을 열고, 국내외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사형폐지 촉구 선언문'도 발표한다.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 가운데 살려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결코 무기를 가해 그 목숨을 끊지 말며, 측은히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같이 대할 일이다. 〈아난사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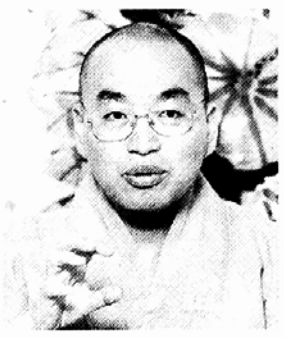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라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사형 폐지 촉구 문화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불자들 또한 "불살(不殺)은 불종(佛種)이요, 대자심(大慈心)은 양약(良藥)이요, 대비(大悲)는 편안한 경지여서, 거기에는 끝내 노사(老死)의 변화가 없다.〈천불인록경〉"는 말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은자 기자

미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분노와 아픔 안으로 삭이고 정의 되살리길"

법륜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질병과 가난이 떠나지 않는 척박한 땅 인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절대 가난. 그러나 그곳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병원과 유치원 건립 등 구호를 위해 인도에 머물렀던 법륜스님이 현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안으로 녹임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편집자)

나는 지금 인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이 곳은 인도의 한 오지입니다. 2600여 년 전에 '고오타마 싯다르타'라는 한 젊은이가 당시 인도 전역이 전쟁의 혼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하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6년 간 고뇌했던 전정각산(쁘락보디힐) 아래입니다.

이 곳은 볼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곳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흙집에서 삽니다. 의료 시설이나 의료 혜택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제도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나 되는 미국민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마치 세계가 곧 무너질 것 같은 큰 재앙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이 곳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화는 분노 속에서 얻을 수 없으며, 행복은 화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 공격자들도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아니면 세계화에 대해, 자본에 대해, 아니면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건물에 부딪쳤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자신도 타인도 해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이며,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바보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 당신들 미국 시민들에게도 싹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해 공격할 때 당신들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분노할 것이고, 그 분노는 또 다시 당신들에게도, 아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라덴이라는 한 사람, 아프카니스탄이라는 가난한 한 나라를 무차별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곳에서 당신들이 겪는 아픔과 분노를 보면서 당신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의 자중과 돌이킴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볼 때는 매우 마뜩찮은 조언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제 가슴 속에 1905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외무대신 '이토오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의사'라 부르며 존경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서산·사명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는 한, 제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모든 분노는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아픔과 분노를 외부의 대상을 찾아 보복하지 않고 스스로 안으로 돌이켜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던 진정한 세계평화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 또한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미국 시민 여러분에게 분노를 안으로 삭히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까지는 내 나라와 민족의 아픔만을 생각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픔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의 침몰된 항공모함 박물관을 보면서 미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느꼈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 공원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분노와 아픔을 느꼈고, 중국의 장춘에서 일본 군인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한 박물관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 낯선 땅 인도의 한 오지에서 이 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제가 내 민족과 나라만 생각하고 지구 저편의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 삶에 대한 참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종말을 증언하는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지만, 사실 이곳 인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전 세계 통신망을 쥐고 있으니 미국의 일이 세계의 일이 된 것이지, 사실은 이 지구상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지나친 자존심을 가짐으로 해서 상처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분노를 안으로 녹이는 것만이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선의와 정의가 되살아나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苦海에 빠진 중생

불자 세상보기



성기서
서원대 교수
영어교육

대한적십자사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이재민 지원 성금을 접수한 결과, 22일 오전까지 고작 1건 14만원이 접수된 반면, 한적이 지난달 12일부터 접수중인 미국 테러 사태 관련 성금은 지난 19일까지 2천894만93원이 접수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아프간 전쟁과 같은 큰 사태에 대해 이처럼 성금이 적게 접수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아마도 테러 주범으로 전해지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재민 지원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약 60% 이상이라는 종교인과 그들의 종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걸림없는 큰 자비심'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로서는 더더욱 철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자비는 무차별적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똑같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온갖 고통으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분별심과 망상에 치우친 견해로 보면 차등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경계에서 보면 '누구나 동등하게 괴로움의 바다에서 윤회하는 중생이며, 마음 한 번 고쳐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르면 성불할 수 있는 존재'이다. 고통에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의 고통이 따로 있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고통이 다르며, 탄저병 테러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부처님께서는 오직 고통을 보셨을뿐 행위자를 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감화시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부처님의 자비행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였을 뿐 아니라, 선악의 경계조차도 허물어버렸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고통을 보셨을 뿐, 사람의 겉모습과 행위를 보지는 않으셨다. 고통은 고통일 뿐 인종과 종교적 신념, 성별과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음을 안다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고통과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고통은 둘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불교의 지혜이며, 이런 정신에서 나온 자비만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불자들이 새벽과 저녁예불에서 빠지지 않고 되풀이하는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불도를 이루어지이다!"하는 서원이 참된 발원이다. 동남아 일대의 불교국가에서 지송되는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남김없이, 길거나 커다란 것이든 중간이건 짧건, 미세하건 거칠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든,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생겨난 것이건 생길 것이건, 모든 삶은 행복하기 빕니다"라는 발원을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적어도 불자의 자비행은 상에 머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평등하고, 서로를 최상의 행복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 1, 전남 1, 서울, 경기 2, 충북 1, 충남 1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경북, 북부대리점
영주 054-635-9153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

사·부·대·중

재적 사찰을 갖자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조계종에서는 신도 등록을 받고 있다. 1인 1사찰 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우리 불자들은 부표마냥 떠돌아다닌다. 집착을 버리라는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인지… 내가 보기에 불자들은 보통 세 군데 이상의 절을 다니는 것 같다. 물론 자기가 좋아서 자유롭게 가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종단에서 목메이게 원찰을 갖자고 부르짖는데도 우리 불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불교는 치마불교, 기복불교, 무질서불교란 비판적 시선을 받아왔다. 이제 불자들도 현대사회에 적응하려면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고 '신해행증'으로 나아가, 종단과 사회를 위한 보살행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 명절이면 어떤 신도들은 3군데 이상 사찰을 다니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 같다. 또 어느 신도는 같은 지역에서 오는 신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라고 했더니, 무엇이 기분 나빴는지 다른 절로 가버렸다.

진정으로 정진하는 불자라면 가까운 절을 원찰로 정하고 꾸준한 기도 속에 수행과 포교 불사를, 말하자면 사부대중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떠돌이 신도 노릇은 이제 그만하자. 가까운 사찰에 신도등록을 하고 애정을 지닌 참불자로서 자랑스럽게 신행을 해야 한다.

이웃 종단은 몇 백만 명을 신도등록하여 조직화했다 하며, 또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의 신도를 교육시켜 일사불란한 신도회를 갖추었다고 한다. 현대는 조직사회이다. 이제 나 홀로, 나만을 위한 기도나 하며 믿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믿음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불교참여연대에서 불교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가 나와, 수동적인 타력신앙의 알을 깨고 능동적인 자력수행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

목탁소리

2002년 문화인물 '유감'

이 은 자(취재2부 기자)

문화관광부는 2002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천주교 순교자인 정약종 ·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이상재 · 서민층의 모습을 향토적 기법으로 표현한 서양화가 박수근 · 청록파 시인 조지훈 등이다.

343명의 역사 인물을 심사한 이번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불교권의 인물은 하나도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불교인을 제외시키기야 했으랴.

하지만 올해만 해도 지난 5월의 문화인물이 조계종의 중흥조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었고, 11월은 우리나라 천태종의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달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0년 5월의 문화인물은 신라 말의 선승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최초로 도입하고 차를 들여와 차문화 발전에 공헌한 진감국사 혜소 스님이었다. 그런데 왜 내년도 문화인물 가운데에는 이렇게 우리 역사와 문화, 사상사에 영향을 끼친 불교인이 한명도 포함되지 못한 것일까?

불교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고, 불교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많은 불교문화 유산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신적 힘이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초부터 사명당기념사업회가 사명당 유정 스님의 문화인물 선정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해 후보 343명 가운데 사명당 유정스님도 포함돼 있었다. 사명당 유정 스님이 이번에 선정된 이들보다 어떤 점에서 떨어지는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사명당 유정스님외에도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한 불교인들은 너무나 많다. 만약 타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그 종교가 이 땅에 뿌리내린 지 얼마인가도 함께 묻고 싶다.

'보시문화' 정착 되려면…

수입 중 1% '나눔의 실천'에 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는 선우'가 최근 '사회를 맑고 따뜻하게'를 모토로 매월 시간과 재물 3%를 보시해 사회에 환원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재가연대도 '1% 회향운동'을 벌이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시' 문화가 싹트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 전반적으로 볼 때 '보시 문화'는 열악한 수준이다. '보시'는 있지만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나눔'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또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보시문화'의 현주소는 어디고, 무엇이 문제이며, '보시행'을 일상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시간의 3%, 재물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선우'. 회원들 대부분은 매월 3%를 넘어 5%를 보시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는 선우' 회원들이 법회를 마친후 '재물 3% 보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불교 '보시문화'의 현주소

복지시설이나 불교시민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자의 몇 %가, 어느 정도를 '보시'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불교계의 '보시 문화'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복지시설이나 불교시민운동단체 등의 보시금 현황을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시주만 복 짓는다' 오해
복지시설 후원 감소세
시민단체는 운영난 심각

불교계의 대표적 복지시설인 소쩍새마을은 최근 2년간 후원금이 30%가량 감소했다.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거나 후원액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연꽃마을이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를 비롯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및 노숙자 시설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복지시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자들의 후원은 아예 밑바닥 수준이다. 재가연대는 물론이고 전불련이나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10여개 불교시민운동단체들에 들어오는 한 달 평균 후원금은 모두 합해봐야 5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사찰이나 단체들이 벌이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3만여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유명사찰인 A사찰은 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해 자비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동참자는 한 달 평균 18명에 불과하다. 또 A사찰과 비슷한 규모의 B사찰 역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지만 보시금은 월 평균 1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ARS 전화모금은 월 평균 동참자 40여명 안팎에 모금되는 보시금도 5만~10만원에 불과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C사찰의 주지스님은 5개월 전부터 신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고아원을 방문해오다 최근 그만두었다. 시간이 갈수록 신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어떤 신도로부터는 "티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나 열심히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들었다.

보시하는 불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불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눔'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보시하는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부정기적이고, 연말연시 등 '반짝 보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선택사항' 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꼭 절에 보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의식도 문제다. 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상하게도 절에 보시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지시설에 보시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님들이 앞장서 이런 인식을 바꾸고, 불자들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어야만 보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도 문제다. 최근 들어 각 복지시설들이 갖가지 후원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또 보시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보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각 시설과 단체들의 안이함에 불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선우 회원들
시간-재물의 3%
유산의 10% '이웃 위해'

어디에,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보시에 대한 접근통로가 개발돼 있지 않아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마저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전환-프로그램 개발해야

대부분의 교계 관계자들은 보시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나눔의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만 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보시행이라는 것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참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수적이다. 먼저 사찰의 경우 수입금의 1%만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단체들과 불자들 역시 수입의 1%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선우'는 얼마 전부터 '시간의 3%, 재물의 3%, 유산의 10%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결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회원들이 매월 5% 이상의 보시를 생활화하고 있고, 회원의 5분의 1정도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직 반향은 적지만 재가연대도 정기소득과 유산의 1% 보시, 주간 · 월간 단위 시간의 1% 봉사활동 참여, 1% 남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나누는 삶을 위한 4대 방편'을 제시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금 모금도 한 방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 정기적인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수적이다. 장학금 등 보시자가 지정하는 '맞춤식 기금'이나 '아이디어' 기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간 나눔' 등의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최근 전북지역 불교단체가 시작해 타종교인의 동참까지 이끌어낸, 1천명이 천원씩 내는 '천천클럽'과 같은 단체를 지역별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일부 복지시설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민과 불우이웃간의 1대1 결연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명우 기자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chamna chehum
하루면 충분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림을 체험하여 일체의 존재와
조화로이 화하여,
진실을 밝히는 세상, 행복을 찾아주는 세상,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구현키 위한 길.

스스로 온전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참나를 체험하여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삶과 죽음에도 메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각자 약사여래불이요, 관음이요,
지장보살의 화현임을 확인합시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영가의 장애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www.chamna.net

사찰 및 납골당 안내

● 위 치 : 경남 양산
● 대 지 : 580평
● 법 당 : 37평
● 요 사 : 30평
● 사무실 : 9평
● 화장실 : 11평
● 약사전 : 11평
● 납골당 : 71평
● 가 액 : 6억(절충가능)
● 핸드폰 : 016)307-1158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㉚ (끝)

이제 성불하는 장면을 살펴볼 순서이다. 선재동자가 마침내 보현보살에게 찾아가 법계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대혜스님의 서간문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현보살의 모공(毛孔)에 들어가 한 털구멍에 한 걸음씩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나 보현보살과 같아지고 부처님과 같아지며 세상과 같아지고 행리가 같아지고 해탈과 자재함도 모두 같아져서 다름이 없나니, 이렇게 되면… 6식이 6신통이 되며 번뇌가 보리가 되고 무명이 큰 지혜가 될 것이니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한 생각까지 진실한 까닭이니라(只在當人末後一念眞實而已)."

선재가 이 때에 비로소 한량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갖추어 성불한(位滿齊佛) 것이다. 경문을 보자.

"이 때를 당하여 선재동자는 차례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다를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이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음이 평등하고 신통이 평등하고 법륜이 평등하고 변재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이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의 머무심이 평등하고 대자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의한 해탈과 자재함이 모두 평등하였다."

이런 법문을 명심하면서, 신심(信心)의 중요성에 대하여 게송으로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자.

"어떤 이는 가는 데마다 부처님께서 온 세계에 가득함을 뵈옵지마는 어떤 이는 마음이 깨끗지 못해 무량겁에도 부처님을 보지 못하며 / 어떤 이는 믿고 알지만 교만이 없어 생각대로 여래를 뵈옵지마는 어떤 이는 아첨하고 마음이 부정하며 억겁 동안 찾아도 만나지 못해."

그리고는 성불한 후 보살행을 닦는 장면을 게송으로 말한다.

"하나하나 털끝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삼십이(三十二)상 구족하시고 여러 보살 권속에게 호위되어서 가지가지 법을 말해 중생을 제도(一一毛端不可說 諸佛具相三十二 菩薩眷屬共圍 種種說法度衆生) / 어떤 이는 한 터럭 구멍을 보니 구족하게 장엄한 넓은 세계에 한량없는 여래가 가운데 있고 청정한 불자들이 가득 찼으며(或有觀見一毛孔 具足莊嚴廣大刹 無量如來悉在中 淸淨佛子皆充滿) / 혹은 보니 한 터럭 끝만한 곳에 한량없는 티끌 수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짓는 업이 각각 다른데 비로자나 부처님 법륜을 굴리신다."

위에서 성불의 장면을 문수보살에게 가서 확인하고 다시 보현보살의 털구멍세계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일불승의 법은 자수용(自受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을 위해 회향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해하자.

이제 입법계품을 총결하는 '끝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게송(無盡功德頌)'을 보자. 80권 화엄경의 종합결론이라 해도 좋으리라.

"세계 티끌 같은 마음 헤아려 알고 큰 바다 물이라도 마셔 다하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을 얽어매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할 수 없네(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 / 이러한 공덕 바다 누가 듣고서 기뻐하며 믿는 마음 내는 이들은 위에 말한 공덕을 얻게 되리니 여기에서 의심을 내지 말아라(愼勿於此懷疑念)."

실컷 장광설(長廣舌)로 화엄을 설하고는 이처럼 조금 밖에 설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법의 세계이리라. 이런 설주의 겸손함이 불교다운 포용력이 아닐까!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마음 깨끗하면 온세계 부처

화엄의 장광설 – 부처님 공덕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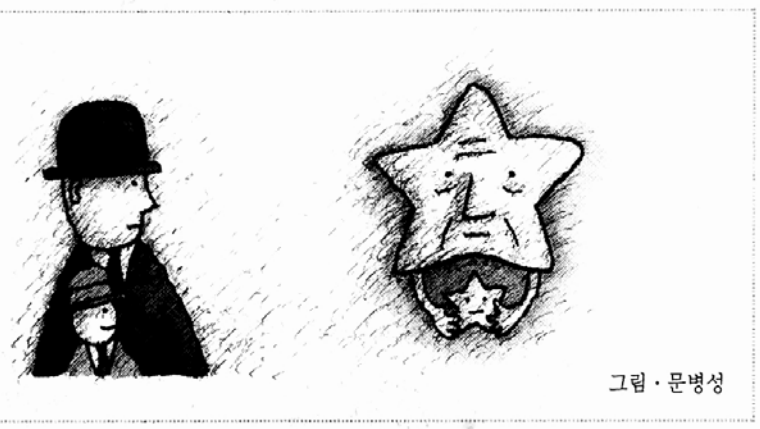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❷

별의 세대순환

만물은 태어나 사라지고 또 태어나는 생주이멸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별의 세계는 어떨까?

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바뀌거나 에너지 전달과정이 불안정해지면 물질을 밖으로 방출함으로써 안정을 찾아간다. 물질 방출은 별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심해지고 쇠퇴기에 들게 되면 더욱 극심해진다. 이렇게 방출된 물질은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흩어지면서 별들 사이를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여러 별들에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방출물질이 서로 모여 성간물질을 이룬다.

5세대가 공존하는 은하계
인간처럼 가족 집착않고
인연따라 세대 순환

인간은 부모 밑에서 자식이 생겨 부모의 핏줄을 이어가지만 별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즉 한 별에서 방출된 물질이 다시 모여 다음 세대의 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별에서 나온 물질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모여 새로운 별을 잉태시킨다. 당연히 특정한 조상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위 세대와 아래 세대라는 세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50억년 전에 우주가 탄생되어 3억년이 지난 후 원시 은하물질에서 첫번째 세대의 별들이 형성되었다. 질량이 다른 여러 별들 중에서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들은 수백만년 내지 수천만년의 짧은 기간만 살다 가지만 일생을 마치며 많은 물질을 방출한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에서 흩뿌려진 물질이 모여서 두번째 세대의 별들을 탄생시킨다. 첫번째 세대의 별들은 초기 원시 은하물질이 차지한 공간 전체에 걸쳐 회전하며 돌아다닌다. 그러나 원시 은하가 수축하면서 점차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물질은 점차 은하회전축에 수직한 원반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세대의 별들은 첫 번째 세대의 조상 별들보다 원반 쪽으로 모여들어 운동공간이 좁아지게 된다. 두번째 세대의 별들 중에서 질량이 큰 별들은 빨리 생을 마치며 많은 물질을 방출하고 이로부터 세번째 세대의 별들이 탄생되고, 이들의 공간 운동은 더욱 더 원반 쪽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은하계 내에는 5종류 세대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다. 태양은 4번째 세대의 별에 해당하며 밤하늘에서 푸르게 보이는 별들은 태양보다 한 세대 낮은 5번째 세대의 젊은 별들이다. 태양보다 윗세대 별들은 나이가 100억년 이상이고 또 태양보다 질량이 적다.

인간은 세대를 거치면서 관습이 전수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서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 그러나 한 가족이 지니는 생물학적 유전 특성은 계속 이어진다. 별의 경우는 어떠한가? 첫번째 세대의 별이 핵반응을 통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중원소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함유된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별을 이루는 물질성분에는 앞선 세대의 별보다 더 많은 중원소를 포함하게 된다.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원소 함량은 더욱 증가한다.

의상 대사의 법성게에서 "한 개의 티끌 중에 우주가 포함되니 일체의 티끌 중에서도 그와 같다(一微塵中含十方 一體塵中亦如是)"라고 했다. 첫번째 세대의 티끌과 5번째 세대의 티끌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성성분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티끌 속에 들어 있는 중원소의 함량이 점차 많아진다. 이처럼 한 개의 티끌 속에도 긴 우주의 역사를 간직한 우주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양처럼 4번째 세대의 물질에서 생겨났기에 윗 세대들의 정보가 우리 몸 속에 들어있다. 이러한 우주적 정보는 유식종의 8식 중에서 아뢰야식인 종자식으로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일부는 칼 융의 집단무의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자 프롬은 무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이란 우주에 근원을 둔 보편적 인간 즉 전인(全人)을 의미한다. 무의식은 자기 속에 있는 식물, 동물, 자기자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여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과거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되는 그의 미래를 나타내며, 또한 인간이 자연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인간화되는 그날을 나내고 있다." 이것은 유의적(有意的) 행(行)이나 사고가 따르지 않은 원초적 본성이 무의식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 등의 특성에 제약받지 않은 우주의 종자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심한 제도적 여과작용에 의해 무의식적 잠재력과 활동이 억제되면서 소위 기계화된 인간으로 전락되고 있다. 불법은 인위적인 어떠한 여과도 거치지 않은 무위적 자연질서를 나타내는 아뢰야식에 따라 자연과 합일하는 것이 올바른 세대의 순환임을 보여준다.

▨이시우/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인도인 백만 불교개종 자유 향한 인류 대사건"

4일 행사 앞두고 람라즈 회견서 밝혀

인도에서 불교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람라즈(Ram Raj)가 11월4일 인도 델리의 람라라 그라운드에서 마련한 '1백만인 불가촉천민 불교개종' 행사를 앞두고 인도 트리뷴(The Tribune) 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로드붓다클럽(Lord Buddha Club)의 창립자인 람라즈는 "이번 행사는 인류사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지구촌 불교

◆불가촉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종(conversion)이 아닙니다. 부흥(renaissance)이라고 해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은 카스트 제도에도 포함되지 못한 천민 중의 천민입니다. 저는 그들이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11월 4일 개종행사는 인도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찾고자 하는 굳건한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이 불교에 귀하는 것은, 불교가 인도 고유의 종교이자 그들의 선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등한 삶을 누린 데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불가촉천민들이 개종해 왔습니다. 1백만이라는 숫자에 담긴 뜻은.

"'인도 나아가 인류사의 대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불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암베드카르의 첫 시도 이후 불가촉천민의 불교 귀의는 소수이지만 계속 됐습니다. 또한 불가촉천민이 인도의 가장 잘못된 관습인 카스트 제도를 버리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월 4일 개종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불가촉천민도 신분 제도로 겪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가 인도 주류 문화되면
천민도 신분 굴레서 해방

◆최근 불가촉천민의 대 사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에 대해 인도 내부에서 우려도 있는데.

"일부 인도들은 불가촉천민이 인도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적인 진보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촉천민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부를 함께 저축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번 개종 행사 역시, 불가촉천민이 인도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촉구하는 평화수호운동의 일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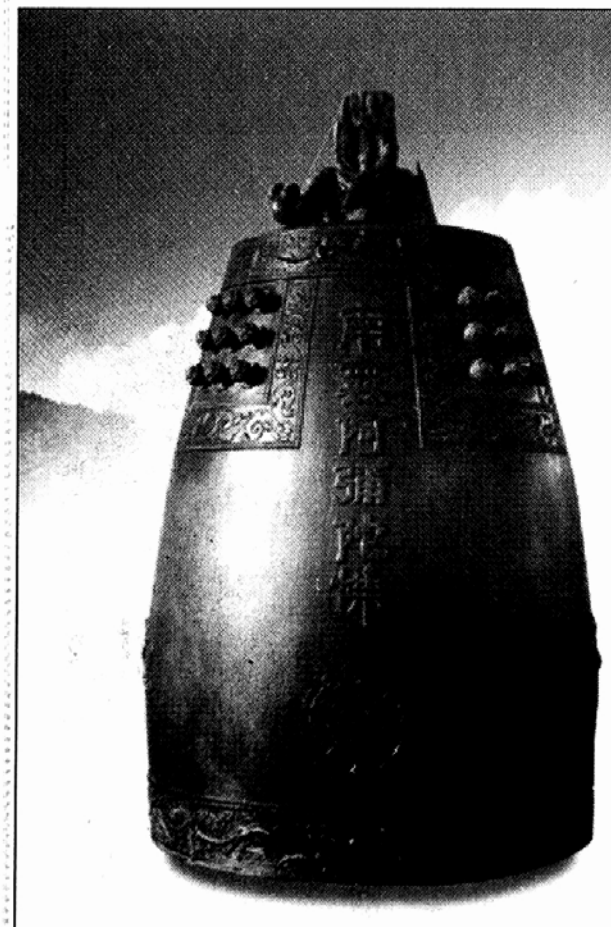
◆불가촉천민은 개종을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여전히 불가촉천민일 뿐입니다. 개종이 어떤 힘을 갖기 보다는 상징성만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인도의 주류 문화가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인도의 주류 문화는 힌두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현 사회 체제에 도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가촉천민은, 불교가 인도의 주류 문화로 자리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불교의 본질을 잃지 않는 창조적인 부흥운동을 통해 불교발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11월 4일 불교에 귀의하는 불가촉천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 불가촉천민이 의식적 자각을 얻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도의 발전에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2억 5천만명의 불가촉천민이 있는 불평등의 땅입니다. '닿기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불가촉천민이지만, 모두 '신의 아들'입니다. 1백만 불가촉천민의 개종 행사란 커다란 변화는 이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1356년전 왜 영취산에 산문 열었나

'통도사 개산대제' 문화축제로

산이 열린 날. 연화장 세계 펼쳐진 날. 영취산 자락도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불보살을 찬탄하는 듯했다. 지금으로부터 1,356년 전 자장율사가 산문을 연 것을 기리기 위한 개산대제가 열리는 통도사를 찾았다.

이미 통도사를 찾은 사람들은 경내 곳곳을 살피고 있다. 오늘이 바로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쌓고 통도사를 창건한 날이다. 수많은 불제자의 정진과 신행의 중심이 되어온 통도사가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시원을 묻는 날. 해동 화엄의 초조 자장 율사는 '왜 이곳에 통도사를 창건했을까' 하는 의문을 마음 가운데 세우게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통도사는 너무 볼거리가 많았다. 개산제를 축제화 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개산대제는 24~25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첫날, 청소년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열린 사생대회에는 초 · 중 · 고등학생 70여명이 도랑 곳곳에서 푸른 하늘과 단풍을 배경으로 절집 풍경을 화폭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25일 열린 사생대회 시상식에서 통도사 방장상인 대상의 기쁨을 안은 구효정(양산여중 3) 양은 "만세루를 그렸는데 단청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며 "단청을 하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찰에 숨어 있는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통도사는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인재를 키우는 일로도 개산조를 기렸다.

아이들이 그들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는 동안, 대웅전 옆으로는 합장한 채 긴 줄을 이룬 불자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사의 가사를 친견하기 위해서

부처님 · 자장율사 가사 친견위해 줄 선 불자들

'남장사 괘불탱 특별전' '고승 선묵전'도 볼거리

였다. 황금빛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바랜 금란가사에서도 불법의 찬란한 빛줄기를 마음으로 끌어안으려는 표정들이 자못 엄숙하다. 또한 부도전에서 올려진 헌다제에서는 개산 이래 청정가풍을 일구어온 선지식들에 올려진 다향이 솔숲을 그윽하게 했다. 이 밖에도 3천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법전, 성보박물관 등에서 펼쳐진 '남장사 괘불탱 특별전', 석정 스님 기증 '고승 선묵 특별전', 본 · 말사 유치원생 재롱잔치, 합창제에서도 개산조의 높은 뜻은 한마음으로 찬탄되고 있었다.

울산에서 온 이경애 불자는 "아이가 통도사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함께 오게 되었다"며 "개산대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멋진 전시와 공연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쁠 뿐 아니라 불교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 절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가 단순한 의식을 넘어 갖가지 산사음악회나 학술세미나, 전시 등의 문화행사와 접맥시키는 것은 이제 불교 행사의 보편적 형식이 되었다. 대중 속에 거듭 나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28일 동화사, 은해사, 금산사 등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개산대제를 치렀고, 갑사는 11월 3~4일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의미라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자비의 쌀 모으기, 추모제 등의 행사를 봉행했다. 이로 볼 때 통도사의 개산대제라 해서 그리 특별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순간 통도사를 찾은 일반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참여한 불자들에게는 평생 기억 속에 자리할 생애 최초의 경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300여 년 세월을 지켜온 통도사의 웅장하고도 고아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개산대제는 그 순간을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가슴 가득 안겨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사가 산문을 연 까닭이고 오늘 그곳에 절이 있는 이유가 아닐까.

통도사=천미희 기자 mcheon@buddhapia.com



◇개산 이후 1356년 동안 통도사의 청정가풍을 이어온 자장율사를 기리는 헌다제가 부도전에서 마련됐다.



◇개산대제를 보기위해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의 모습.

개산대제(開山大祭)란 창건일이나 개산조 입적일 여는 법회

불가에서 개산이라 함은, '산문'을 여는 일, 즉 절의 창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산대제란 절의 창건일을 기념하여 여는 큰 법회를 말한다. 또는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입적한 날을 기리는 입적기일법회를 뜻하기도 한다. 한 종파나 사찰을 창건한 스님을 존경하여 개산조 또는 개조라 하여, 그가 입적한 날을 기념해 그 종파나 절에서 해마다 성대한 법회를 갖는 것이다.

본산(本山) 일으킨 사람을 개산조라고 하여 구별하고, 절을 창건할 때의 대시주(大施主)나 말사(末寺)를 세운 사람을 개기(開基)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해인사는 창건주 순응 스님을, 통도사는 자장 스님을, 범어사는 의상 스님을 개산조라고 한다. 〈진심직설〉 발문에 보면 "보조는 조계수선사의 개산초조이다(普照師 乃曹溪修禪社 開山初祖)"하여, 보조 스님이 조계수선사의 개산조임을 밝히고 있다. 사찰의 개산조사를 모셔 둔 당을 개산당(開山堂)이라고 하는데, 조사당, 조당, 영당, 영실 등으로도 불린다.

최근 들어 개산대제는 단순한 의식법회의 차원을 넘어, 개산조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제를 비롯해 전시회, 음악회 등 산중의 모든 대중과 불자,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열린문화행사로 진행된 개산대제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참했다. 사진은 통도사 본말사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대중과 개산의 기쁨 나눠요"

인터뷰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1356년 전 자장 율사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높은 뜻을 기리고 찬탄하는 것, 그것이 개산제의 의미입니다. 이번 개산대제는 예년과 달리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행사로 준비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10월 21일 영축예술제로 시작으로 부도헌다제, 괘불탱 특별전, 고승 선묵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개산조의 뜻을 기리되, 개산제라는 의식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불자뿐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찾아 통도사를 찾은 사람들에게도 산사의 멋과 여유를 안겨주기 위해 기울인 세심한 배려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법문만큼이나 불교문화나 예술작품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별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개산대제 행사 일정 내내 불자들과 함께 한 스님은 "도량 곳곳에서 마주치는 불자님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여유롭고 밝아 보였다"고 기뻐했다. 스님은 그 밝은 표정을 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통도사의 또 다른 사명을 새삼 느낀다고 한다.

"통도사가 계를 근본도량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와 복지 포교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자장 율사의 개산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불사"라는 현문 스님의 말씀은, 통도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形形色色의 燈 사바어둠 밝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등축제

가로 등불 꺼진 남산골 한옥 마을에 그보다 더 밝은 형형색색의 등(燈)들이 불을 밝혔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전통등연구회와 서울시월드컵추진단의 주관으로 23일~28일까지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2001 지구촌 등 축제'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선 커다란 호들이등을 비롯해 월드컵 마스코트를 이용한 대형등, 목어등 등 불교의 전통등과 현대적인 미를 더한 창작등도 다수 선보였다. 또한 18m 길이의 중국의 용등을 비롯해 일본, 미국, 멕시코, 세네갈 등 8개국 3천여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등 축제에는 연일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24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의 부모님께 인사 차 올라와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이경재 씨(형주시 흥덕구)부부는 "우리의 등이 이렇게 다양하고, 화려한 줄 처음 알았어요. 그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구촌 등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본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넣은 종등.



◇탑의 모양을 본뜬 탑등.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경재 씨 부부가 열매 맺히듯 주렁주렁 달린 등터널에서 활짝 웃고있다.



◇여의주를 입에 문 용등.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무외 선사 '無位閑'

선사의 법명은 선영(善影), 자는 무외(無畏), 법호는 영허(映虛), 당호는 역산당(亦樂山堂)이다. 속성은 임(林) 씨이며, 아버지는 득원(得元), 어머니는 조(趙) 씨이다. 조 씨는 어느 날 꿈에 불상에서 서광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조선 정조 16년(1792) 3월 23일 한양성 운현현(雲現現:지금의 운현동)에서 선사는 탄생하였다.

12세에 경기도 양주 학림암(鶴林庵) 용운승행(龍雲勝行) 선사 문하에 나아가 삭발염의하였고, 구족계는 성암덕함(聖巖德函) 선사에게 받았다. 그 후 선사는 화악지탁(華岳知濯) 선사에게 수참(修參)하였다. 21세 되던 해 한여름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같은 비가 내렸는데, 3일째 되는 날 벼락치는 소리에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무위한(無位閑 : 몸도 마음도 없는 것)

인봉덕준(仁峯德俊) 선사의 법맥을 이은 선사는, 이후 주로 남쪽 지역에서 보내다가 중년이 되어 함경도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 들어가 입적하실 때까지 주석했다. 선사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아 정진에 방해가 되므로 한적한 별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사에게 학문을 닦고 수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납자들이 마치 여름 하늘의 구름 같았으며, 의발을 전해 받은 납자는 겨울에 눈 덮힌 산처럼 빼어났다.

선사께서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즉 바른 지혜의 안목을 확립하여 불조(佛祖)의 법등(法燈)을 전하였다. 선사께서 선설(禪說)한 활구(喝句)는 늘 깨어있으며 신령스레 어둡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이 마음이며, 뭇 신묘함을 머금고 온갖 곳으로 흘러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품이다. 이 마음과 성품을 좇아서 쉬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정(情)이라 한다. 성품은 마음의 바탕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과 성품은 광범위하여 만물에 이르기까지 어디에고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란 마치 창공에 떠 있는 달과 같아서 구름이 걷히면 밝고, 구름이 가득하면 어두운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보통사람들이라고 해서 오염되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해서 깨끗하지도 않다. 마치 물과 물결처럼 비록 맑은 물, 흐린 물로 구별되더라도 물의 젖는 속성은 마찬가지다. 비록 그렇지만 이 한 물건은 마치 금강동자(金剛童子)와 같아서 천 번 태어나고 만 번 죽는다 하여도 그 경지가 변함없고 육도사생(六道四生)을 윤회하여도 그 모습 바뀌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성인이고 그것을 못 깨닫으면 보통 사람이다. 선사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가르침을 통해 우리 중생들에게 안락한 저 열반의 세계로 들게 하였다. 선사께서는 마음과 성품과 정(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 물건의 불멸하는 진리를 일깨워주었다.

선사께서는 고종 17(1800)년 설봉산 내원암에서 세수 89세 법랍 77세로 입적했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흰머리 검은승복 게으른 늙은이

마침내 한 경지 다다르고 보니…

松窓土壁溪邊地(송창토벽계변지)
白首緇衣懶一翁(백수치의나일옹)
意到忽然心自樂(의도홀연심자락)
朗吟閑步任西東(랑음한보임서동)

창밖에 푸른 솔이 보이는 시냇가 초암에,
흰머리 검은 승복 게으른 늙은이 하나.
마침내 한 경지 다다르고 보니 마음절로 즐거워,
낭랑한 목소리로 경 읊조리며 한가로이 거니네.

월파공(月破空 : 깨달음의 소리)

卓立庭前栢(탁입정전백)
長青直聳空(장청직용공)
影從千古月(영종천고월)
聲任四時風(성임사시풍)

우뚝 선 뜰 앞의 잣나무,
창공으로 솟은 늘 푸른 모습.
천고의 달빛 따라 그림자 드리우고,
사계절 바람 좇아 소리를 낸다.

韓-中 큰스님 대담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VS 정혜스님 백림선사 방장

'차나 한잔 드시오(喫茶去)'는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로 1200여년전 당나라 때 조주(趙州, 778~897)선사에 의해 보편화된 화두다. 중국 하북성 조주 관음원(觀音院)에서 선풍을 드날렸던 조주선사는 중국 선종을 남종선으로 통일시킨 마조(馬祖)선사의 증손이 되는 위대한 선승. 한국 선종의 사자산문을 연 철감도윤(澈鑑道允) 선사와 동문수학한 법형제간으로 한국 불교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19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뜻을 모아 '조주선사 선차기념비'를 조주 관음선이 자리했던 백림선사 경내에 건립한 것은 한중간의 황금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선종의 수행가풍을 새롭게 드날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선차기념비 낙성식을 겸한 한중 차도(茶道) 시연(表現), '선다일미' 학술대회와 함께 지월루(指月樓)에서 진행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과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의 '한중 고승 대담'은 한중 선종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스님은 조주선사의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등의 실참 화두로 선을 생활화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새로운 시대 인류의 정신문명으로 승화시키자는 서원을 드높였다.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禪법맥 한 뿌리 후세에 영원토록"

정혜스님=한중 양국의 뜻을 모아 조주선차 기념비를 조주탑(趙州塔) 앞에 세우게 된 것은 천추에 길이 남을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주선차 기념비 건립은 2년전 불교춘추사 최석환 거사가 발의하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와 명원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주탑 앞에 세우자는 제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쾌히 승낙을 했었습니다.

진제스님=하북성 조현(趙縣) 땅은 1200여년 전에 '끽다거' 공안으로 천하 사람들의 눈을 열게 했던 조주선사가 선풍을 드날렸던 선기어린 유적입니다. 오늘 한중 양국의 황금우의를 다지는 조주선차 기념비 제막식이 있기까지 자비를 베풀어주신 선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혜스님=백림선사는 옛 조주 관음원으로 조주선사가 끽다거로 평상심의 도를 실현해 오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백림선사의 지침이 되고 있는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과 너무나 일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주선사는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자산문을 연 철감도윤 선사와 법형제간으로 선다일미의 정신이 신라로 이어진 것을 볼 때에,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중국의 선맥이 임제로부터 석옥청공, 태고보우로 이어졌듯이,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혈연 이상으로 가깝다는 점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인상입니다. 특히 한국 조계종이 중국 당대의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인 선의 풍토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제스님=중국 불교는 당송대에 선의 황금기를 맞았고, 현대에 와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했지만 허운(虛雲, 1850~1959)대사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정혜 선사께서는 근세 중국 선종을 일으킨 허운대사의 법제자이십니다. 중국 선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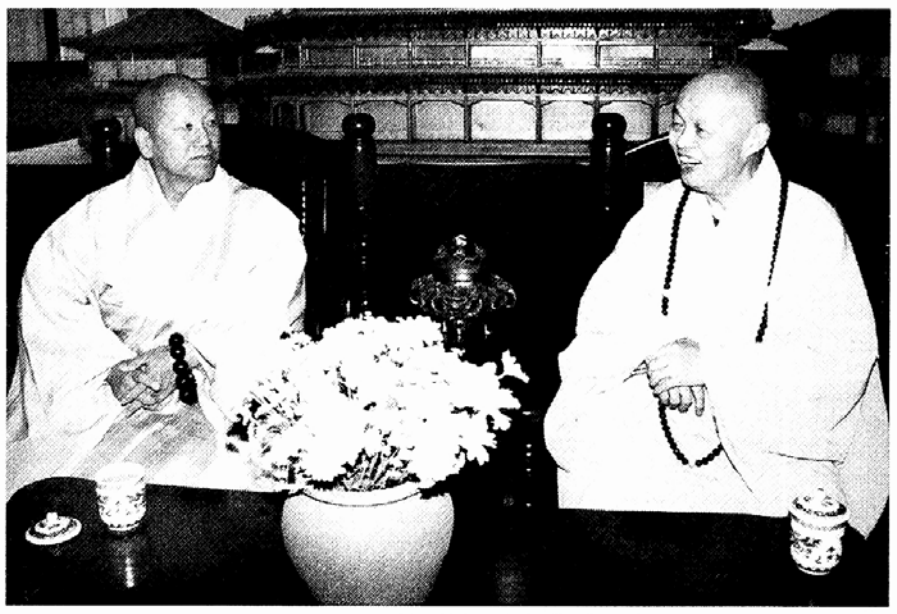
정혜스님=중국불교의 장점은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하는 백장선사의 청규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선병행(農禪竝行)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방장 이하 전 대중이 규칙적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마다 불학 및 선학연구소를 만들어 활발하게 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불교는 선종뿐 아니라 염불, 정토종과 화엄종이 있지만 앞으로는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중국 불교는 그간 거사불교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거사인 방(龐蘊)거사로부터 근세의 양인산(楊仁山), 양계초(梁啓超)를 비롯 지난해 작고하신 조박초(趙朴初)거사에 이르기까지 거사불교가 선종을 떠받쳤습니다. 또한 허운대사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단절되어버린 위앙종과 운문종을 부활시키고 임제, 법안, 조동의 전 종풍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선지식이 대부분 허운문도인 까닭은 이 때문이지요.

진제스님=허운대사는 56세 때 양주(陽州) 고민사(高旻寺)에서 59일째 용맹정진 중, 뜨거운 찻물 때문에 떨어뜨린 잔이 깨지는 소리에 의심의 뿌리를 모두 끊었습니다. 〈범망경〉을 널리 강의했던 스님은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국내외의 법난 속에서도 승가를 외호하고 사찰을 수호했습니다. 세수 120세에 길상와(吉祥臥) 자세로 입적한 허운대사께서 강조한 수행방편은 어떠했습니까?

정혜스님=종문(宗門)은 '자성을 밝게 깨쳐 본래 성품을 환희 보는(明悟自心 澈見本性)' 참선을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은사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다시 말해 모든 방편문이 다 묘한 법이며, 모두가 생사를 해결하여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그 사람의 근기에 적합한가 아닌가가 문제될 뿐, 굳이 법문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 법문은 종(宗, 선종) 교(敎, 교종) 율(律, 율종) 정(淨, 정토종) 밀(密, 밀교)입니다. 이 다섯가지 법문은 사람마다의 근기와 성향에 따르기 위한 것이니, 어느 것이든지 한 문만 수행하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 문에 깊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래도록 변함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제스님=이 거룩한 백림선사 청정도량에 부처님의 심인법이 유전되어 조주선사에 이르러 크게 가풍을 드날렸습니다.

정혜스님=조주비를 세운 뜻은 한국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왼쪽)과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은 19일 백림선사 경내 지월루에서 대담을 갖고 조주선사의 '선다일미' 사상을 계승하고, 조사선의 선풍을 중흥시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백장청규 계승 중국불교의 장점
정혜스님

'끽다거(喫茶去)' 천하 사람들의 눈 열게 한 공안
진제스님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改訂增補版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두손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릇의 일체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형이상학인(形而上學)으로서의 「카비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연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숙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방인지, 지문 칠 수 있는 방인지 옷 고칠 방인지 언제부터 시도기 위해 될 것인지 처음가 수조등을지 다무제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송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형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육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침범 · 신소달 · 빌미부정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신시(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음양오행가·신명제자·의사 등 활인천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십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희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셔서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복자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天蓼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경허-혜월-운봉-향곡 법맥 이어

진제 스님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인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군 상동면에서 태어났다. 1954년 21세때 남해 해관암에서 석우(石友)스님을 친견한 것이 출가인연이 되었다.

1959년 26세 때 향곡스님을 친견,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 화두를 받아 2년동안 묘관음사 길상선원에서 두문불출 참구했다. 1961년 가을, 드디어 '향엄상수화' 화두를 타파하고 향곡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두 설두스님도 다른 공안에는 다 확연명백하였으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月面佛)' 공안에 막혀 다시 20년을 참구하였듯이, 진제스님도 이 공안에는 막혔다. 다시 이 화두를 5년동안 참구한 끝에 1967년 33세 되던 해에 확철대오해 향곡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이어지던 법맥이 진제스님에게 가 닿게 되었다. 스님은 1971년 37세에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을 역임하면서 해운정사를 창건했으며, 1981년 향상선원을 열었다. 94년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을 맡아 현재까지 납자를 제접하고 있으며, 96년 조계종 기초선원 조실, 2000년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을 역임했다.

허운대사 법제자…생활선 주창

정혜 스님은?



1932년에 출생한 정혜 화상은 3세에 동진 출가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통을 계승했다.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 이란 기치아래 1991년부터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생활선 대회에는 매년 북경대 학생 등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조박초 거사의 입적으로 회장 공석이된 중국불교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중국 불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혜 스님은 백림선사 내에 3년과정의 하북성불학원과 선학연구소에서 100여명의 학인에게 불학 및 문화(종교정책, 고대한어, 중국사, 세계사, 철학, 영어, 서도 등 외전)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스님은 중국 선종의 부흥에 심혈을 기울여 귀운암(歸雲庵)에 일체의 출입을 통제한 무문관(壁觀)을 설치해 7명의 수좌가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내부공사중인 청송루(聽松樓)도 무문관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사찰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1999년 11월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만불전과 2개의 선당 건립 불사에 착공, 2003년 음력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중이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 흥선 스님



<전호에 이어>

불교문화는 우리에게 신앙이며 귀의처인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의 정직한 표정이고 사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찰의 신축건물 불사에 못지않은 공덕과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건만 스님들도 불자들도 너무 무관심하다. 사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불교문화재를 한 개인의 소장품으로 있게 하기엔 너무 안스러운 일이다. 사찰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보존하는 차원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물 구입에 관해서는 오로지 사찰의 문제이므로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건물 신축 불사에만 정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재를 구입하는데 아낌없이 시주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흥선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까지 왔다.

스님은 며칠간 서울에 머무른다며 오늘은 초서(草書)를 공부하러 간다고 한다. 난 글자가 똑똑 떨어지는 독초(獨草)는 좀 알겠는데 글자의 획이 주르륵 이어진 연면초(連綿草)는 그냥 이응노의 문자그림과 같건만 스님은 그 초서를 배우러 다닌다 하니 나날이 깊어 가는 스님의 학문에 머리가 숙여진다. 하긴 그렇게 공부했으니 절집의 온갖 비문과 경서들을 섭렵할 수 있을 것이다.

탁본 남다른 재주와 열정
타고난 불교문화 지킴이

스님은 또하나 남다른 재주가 있는데 탁본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홍준 교수에게 '현대불교'에 흥선 스님에 대해 쓸 예정이라고 하자 한마디로 평한다.

"흥선 스님이야 명탁(名拓)이지." 흥선 스님이 한 탁본 가운데 잘 된 것 몇 개를 짚어 달라고 하자 '상주남산 석각비천상(石刻飛天像)'을 꼽는다. 다른 것들은 다 판판한 돌에서 탁본한 것이지만 이것은 울퉁불퉁한 화강암 판석에서 한 탁본이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인데 매우 아름답게 됐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학고재화랑에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탁본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흥선 스님의 작품이었다. 거기서 본 비천상은 마치 금방이라도 발을 내딛어 나올 것만 같이 생생한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탁본을 보며 돌 속에 담긴 이미지와 느낌, 움직임까지 받았다면 그건 탁본으로는 성공한 것이다. 고창 선운사에 가면 추사가 남긴 백파선사의 비가 있다. '화엄종주 백파대율사 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라고 쓴 추사의 글씨는 반듯하며 장중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비문이다. 답사 길에서 그 비석 앞에 선 흥선 스님은 이 좋은 비석을 탁본을 잘못 하여 다 망가트려 놓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탁본을 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요샌 아예 탁본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주지스님에게 잘 말씀드리면 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탁본지식을 가진 이들이 비석에 온통 먹칠을 해 놓고 가는 바람에 스님들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탁본에는 습탁과 건탁이 있는데 습탁은 말 그대로 비석에 종이를 물로 불이고 먹물을 솜방망이에 묻혀 가볍게 두드리면 글자와 문양이 살아납니다. 이 습탁은 오랜 경험으로 먹물의 농도와 두드리는 손의 힘이 적절해야 아름다운 탁본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이게 추사친필이라 하니 탁본을 하려는 욕심으로 비석에 먹물을 마구 발라 놓고 종이로 찍어대는 바람에 비석이 먹물로 얼룩덜룩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건탁이 있는데 이건 종이를 대고 딱딱한 먹으로 문질러 글자와 문양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지요. 또 오금탁이니 격마탁, 선익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직접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탁본에 대해 해박한 흥선 스님의 탁본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매우 단아하다. 다른 이들의 탁본은 먹물이나 힘이 분산되어 가끔 얼룩덜룩하게 물결 무늬가 일기도 하는데 스님의 탁본은 깊고 고요한 바닷물 위에 글자가 솟아오른 것처럼 평정을 잃지 않고, 엷은 먹물로 된 것은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깊은 신심으로 가득한 수행자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님은 요즘 불교교양대학에서 그 동안 답사 길에서 만난 성보와 많은 문화유산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지닌 의미를 가슴깊이 느끼고 정겹고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신심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스님에게는 좋은 시주인연이 되어줄 선남선녀들이 무수히 생겨나 직지사 박물관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흥선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전하는 소임으로 깊은 수행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스님이 박물관장 소임을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끝〉

반야사 주지

禪茶一味 달여 만사람에게 권하니 마시는 자는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진제스님 게송

중국의 선종이 한 뿌리임을 새삼 되새기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주선차 기념비명에 이르기를 "한중 불교는 한 뿌리이니 옛부터 한 집안이며 선풍을 함께 하니 법맥 또한 서로 전함이니"라고 했으니, 이 비를 세워 후세에 선종의 자취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제스님=학술회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주선사의 '선다일미' 사상에 대해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산승이 점검하건대, 조주선사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드러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게송 읊기를)

조주고불(趙州古佛)에게 예배하노니,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는 것이 때에 따라 씀이로다. 선다일미를 달여 만 사람에게 권하니, 마시는 자는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남전선사가 때로는 말하기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어젯밤 삼경에 각각 이십 방(棒)씩 때려서 철위산(鐵圍山) 지옥을 향해 던짐이로다."

조주선사가 이르기를 "화상은 누구의 방망이를 맞으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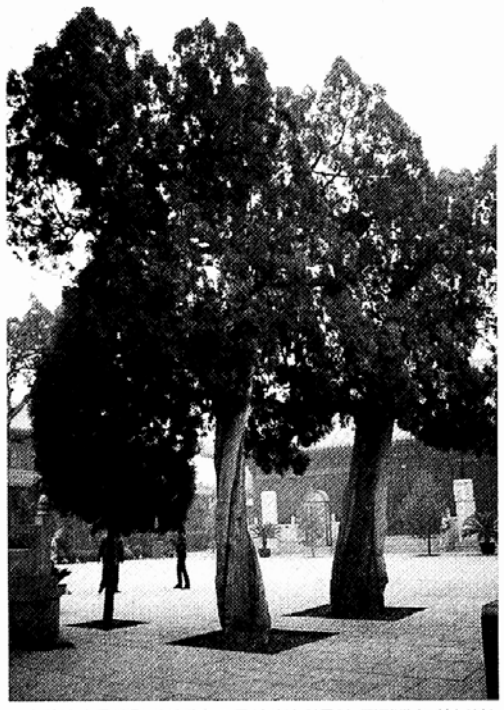
남전선사가 이르되 "일러라, 왕노사(王老師)는 허물이 어느 곳에 있음인고?"

조주선사 예배하고 물러나가시다.

도리어 알겠는가?

용과 범이 서로 부딪침에 번개불 긋는 기틀이 있음이로다. 남전선사와 조주선사의 날카로운 기봉앞에는 천하도인도 속수무책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시자야! 차를 달여 두 분 선사께 차를 올려라.

정혜스님= '선(禪)'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言語)에 의거해 선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차 시연을 통해 차의 정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에는 차(茶)가 없고 차에는 선이 없지만, 선과 차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또한 없습니다. 차는 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결국 선을 마시는 것입니다. 선의 본뜻은 바로 차의 본의입니다. 선은 믿건, 믿지 않건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중들은 '선다일미'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할 지라도 결국 다 못할 것이기에 게송을 지어올립니다.



◇천년의 풍상을 이겨내고 조주선사의 화두인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의 일화를 간직해온 손자뻘 측백나무(柏) 한 쌍.

禪茶一味의 뜻 만리의 강에 오래 오래 흐르기를

정혜스님 게송

가을 바람 청량하게 불어오는데(秋風陳凉) 옛 측백나무는 지금도 푸르구나(古柏今新香) 선다일미의 뜻(一味禪茶意) 만리의 강에 오래오래 흐르기를(悠悠萬里江).

진제스님=산승이 일미다(一味茶)를 대접하려 두 팔을 건지고, 두 손을 씻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앞에 차 한 잔 선물하려 합니다.

'악(喝)!'

정혜스님=선사께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을 일러주는 할(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제스님=제가 있는 해운정사에서 내년에 고불총림 방장 서옹 대선사와 중국의 정혜 대선사님, 그리고 일본의 고승을 모신 가운데 국제 무차선 대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스님의 왕림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혜스님=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림선사에서도 2003년 음력 8월 15일에 만불전 낙성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께서 증명해 주시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중국 하북성=김재경 기자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정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안되는분
◆나쁜꿈에 시달리는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황토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금강도공 호경 김휘철 합장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수맥과 전자파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및 곰기정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 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인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 입니다
◆황토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송출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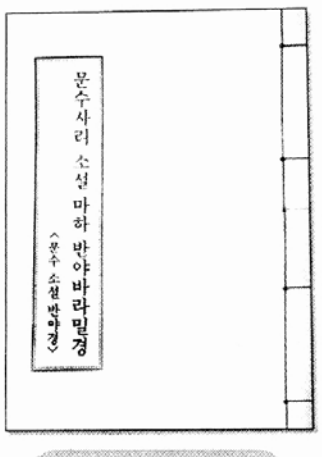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

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 소설 반야경>

우리나라 불교계에 처음 소개되는 경전
한글역「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보살이 설하는 심원한 지혜와 복덕의 경전



문수사리 소설 반야바라밀경을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지혜로운 자는 응당 일심으로 이 문수 소설 반야심경을 소중히 하고 뭇 중생을 도와서 안락하게 하고 공덕을 쌓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또한 신통력으로써 문수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수호해주리라 !

크기 19cm×25.5cm
134쪽
정가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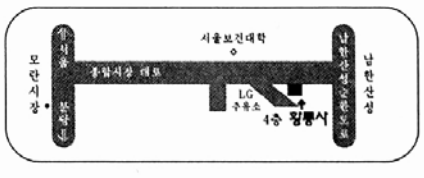
구입문의 : 연화불교출판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 (반월당보현사앞)
전 화 : (053)253-1923 / (053)524-8711
핸드폰 : 011)536-1923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 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족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 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시예불 ~
● 결 재 : 2001년 12월 22일 회향(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황룡사 주지 금해

문화·학술계의 法床에 오른 의천 스님

열반 9백주기 … 11월 6~14일 특별전 16일 학술제 17일 예술제



◇법화사상을 정리하고 천태종을 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구법활동 뿐 아니라 고려중기의 사회·경제·정치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대각국사 영정.

문광부 선정 '11월의 인물'

"원하는 바 정도를 중흥하려 함인데, 병마가 그 뜻을 빼앗았나이다. 바라옵건데 지성으로 불법을 외호하시와, 여래께서 국왕 대신에게 불법을 외호하라 하시던 유촉을 봉행하시오면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사상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승 가운데 한 분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형왕(兄王) 숙종에게 남긴 유언이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1월의 문화인물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의 열반 900주기를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팔만대장경 조성의 근저가 되고 있는 〈신편제종교장총록〉과 〈고려속장경〉을 간행했으며, 선교양종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고려 중기에는 이들의 통합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한반도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왔던 법화사상을 천태종의 창립으로 꽃피웠다. 의천 스님은 또한 국가경영에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당시 사회·경제·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송나라 유학 후 전화(錢貨)의 유통을 강력히 주청하는 '청주전표(請鑄錢表)'를 발표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화폐 경제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때 주조된 화폐가 바로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중보, 해동중보 등이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이같은 사상과 업적은 그대로 계승되어 현재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로 실천되고 있다.

먼저 11월 6일~1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대각국사 의천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대각국사 진영(보물 1044호), 대각국사 금란가사, 대각국사 용문탁의, 대각국사 향로, 홍왕사 출토 대각국사 묘지명석과 영통사, 선봉사비 탁본을 비롯해 국사의 저서인 대각국사 문집, 외집, 속장경 간기와 법화경 보문품 삼현원찬과문(보물 204호), 대방광불화엄경(보물 1017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보물 390호) 등 10여점의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가 전시된다. 또한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관음보살 입상,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청동은입사합, 청자발우, 청자다완 등과 천태사교의 집주, 천태3조사위패, 천태종 승려가사, 현대 천태종 서적 등 천태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천태 국제학술회의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열린다. 한·중·일 3개국 7명의 학자가 참가하는 학술회의에는 의천의 중국활동·의천 문헌을 통한 일본과의 교류·의천과 그 이후의 천태법류·의천의 문학사상·고려 불교에서의 의천의 위상·주전론을 통한 의천의 경제관·의천의 천태사상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제7회 천태예술제에서는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국악관현악과 불교의식, 무용으로 재현한 '교성곡 대각국사 의천'이 선보인다. 천태종 범패 보존연구회와 ㎜리을무용단, 천태종 연합합창단, KBS국악관현악단 등이 참여한다.(02)3460-5300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조영희 作 '금니나한도' 가운데 일부분.

전승공예대전 은상
조영희 作 '금니나한도'

제2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조영희씨(49) 作 불화 '금니나한도'의 부분이다. 6폭의 병풍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104명의 나한과 동자승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전승공예대전 대상에는 최남선씨의 '가죽옻칠함'이 선정됐으며, 금상 박귀래씨의 '철화 머릿장' 등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2월 12일까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시된다.

7대 종단 예술제 통해
'종교의 벽' 허물기

11월 9~15일 음악제 등 열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의 7대 종단이 문화를 통해 종교의 벽을 허물자고 나섰다. 제5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과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프레스 센터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이만신)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불교와 기독교가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행사여서 겉으로만 종교 간의 화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종교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악제: 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원불교 주관의 음악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김영임, 조상현씨의 창 공연을 비롯, 불교연합합창단, PBC소년소녀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원음합창단 등 연합합창단의 연주도 선보인다.

•미술제: 불교계가 주관하는 미술제는 9일부터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석원씨의 '바다새' 등 한국화 34점과 이만익 씨의 '미륵반가상' 등 서양화 49점을 비롯해 김선심 씨의 '우뚝서기' 등 조각 22점, 총 151점이 전시된다.

북한영화 '소금' 상영

•영화제: 개신교가 준비한 영화제에서는 9일 북한영화 '소금', 10일 'A.I', 11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12일 '어둠속의 댄서'가 오후 4시와 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학술세미나: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천주교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21세기 한국 가정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66-4776



◇석주 스님 作 '심조만유'.



◇석정 스님 作 '면벽달마'.

'禪墨一如' 세계로의 초대

석주·석정 스님 불교텔레비전 돕기 선서화전

11월 14~20일 공평아트센터

평생을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불자들을 이끌어 온 석주 스님(첨보사 조실, 92)과 우리 불교미술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73)의 선묵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선속의 묵향'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불교텔레비전의 위성방송 설립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90을 넘어선 노구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본분사를 잃지 않고 있는 석주 스님의 서예작품 37점과, 출가 이후 60여년을 오로지 붓과 벗하며 그림그리는 일과 수행이 둘 아님을 몸소 실천해 온 석정스님의 선서화 104점이 전시된다. 선불교의 정신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체의 분별을 떠난 깨달음에 들어서는 것이다. 선서화는 이런 깨달음의 정신을 표현해 내는 것으로, 예술적 기교뿐만 아니라 삶과 우주를 꿰뚫는 선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석주 스님의 글씨와 석정 스님의 선서화는 오랜 선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선(禪)적 체험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석주스님의 글씨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아한 필체로 선적인 향기를 품뿜 풍겨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심조만유(心造萬有)〉와 〈세계일화(世界一花)〉등 일필휘지로 쓴 선서에서 스님의 수행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선서화의 참맛은 답백한 데 있다"고 말하는 석정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여느 선서화가의 작품과는 다른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통해 선묵일여(禪墨一如)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02)3270-3413

이은자 기자

심장병 어린이 고통 나누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심장병어린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어린이와 청년, 어머니와 스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입을 맞추는 한마음선원 합창제 '님의 소식'이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한마음선원 전국 15개 지원의 어린이, 청년, 어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 700여명이 참여해 그야말로 사부대중의 음성으로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을 노래하게 된다.

특히 한마음선원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합창제는 오후 4시와 7시 2회 공연된다. (031)470-3100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전국 15개 지원의 어린이, 청년, 어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이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 1997년 공연 모습.

문화소식

한-일 사찰음식 교류전

제주 약천사(주지 성공스님)는 30일~31일 한국의 사찰음식과 일본의 정진(精進)요리를 선보이는 한-일 사찰음식문화교류전을 갖는다. 약천사 '오백나한 봉안식 및 국제가사불사 회향대법회' 봉행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 사찰음식문화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064)738-5000

구미 룸비니합창단 연주회

구미 룸비니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31일 오후 7시 30분 구미예술문화회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룸비니어린이합창단이 찬불가와 동요를 연주하고, 천태종 금오합창단과 대한불교소년소녀무용단 등이 찬조 출연한다. 또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도 출연한다. (054)453-7424

11월 1~4일 화순운주대축제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가 11월 1일~4일까지 화순 운주사, 고인돌 군현지 등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기원제를 비롯해 운주사 삼거리에서 대웅전까지 연등에 불을 밝히는 만등불사 행사와 석불제작, 발우공양 등이 진행된다. (061)374-0660

최선호 '마음의 점찍기展'

화가 최선호씨(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의 '마음의 점찍기(點心) 전'이 11월 2일까지 서울 관판동 갤러리 인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송광사 참선 수련회에 참가한 이후 참선 수행을 해 오고 있는 최씨는 무념무상의 경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02)732-4677

※기사 넘쳐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는 쉽니다.






탁자 닫집 만큼은
전문업체에 맡기 십시오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신선상, 목탱화
▲목공부 – 탁자, 닫집, 경탁 외
▲건축부 – 전통, 현대식 건축

佛事시공 전문·담채 도색 유일 업체

대 한 불 교 예 술 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45-5
TEL : 031-542-3296 / FAX : 031-543-1686
사 장 한성용 (011-336-5200)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와공부 – 단청, 탱화, 담채

대한불교예술원은 한국불교문화의 한걸음앞선 보급 협력인이 되길, 참관객을 목적 납품하고 있습니다.

평화위한 종교간 책읽기

인도의 영성가이며 가톨릭 예수회원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쓴 〈깨어나십시오〉(분도)는 종파를 초월하는 지혜서라 할 수 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기까지는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보면 불제자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들어본 가르침이라 하겠다. 불가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生死一如)'라고 가르친다.

사랑하고 자비 베풀라



변희선 신부 '깨어 나십시오'

드 멜로 신부에 의하면,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감각적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에 의하여 매개된 세계, 즉 깨달음을 통하여 진아(眞我)를 얻은 세계를 말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인인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게 일반 상식인 요즈음 세상에서 참 자유를 깨우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악업(惡業)들에 의하여 속박된 인간 개인들과 집단이기주의로 중무장한 여러 조직들은 오늘도 자신들만의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미국, 아프간, 빈 라덴도 결국 악업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비자유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드 멜로 신부는 절규한다. 종교집단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 기독인도, 불자도, 회교도들도 모두 종파주의를 초월하여 참 진리를 추구해야한다. 참 진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
영성·깨달음 되살려야

"우리는 깨어난(깨달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인식이라기보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로 몰입하는 경지를 말한다. 서양의 기독교가 수행(修行)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지만, 동양의 현자들은 학문이나 지식이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랜 역사를 통하여 터득해왔다. 수행이 부족한 지식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보화 국제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집착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인 영성(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 멜로 신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공통점, 즉 영성과 깨달음을 초 종파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자비를 베풀라. 기독교의 성서나 불경에 나오는 공통 가르침이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변희선 신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수회신학대학원을 거쳐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방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및 교목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 수련 교육학〉, 〈마음의 경제학, 하느님의 경제학〉 등이 있다.

홀로 선 날들의 기쁨과 슬픔

'꽃담' 해만 스님 지음



사람들은 이맘때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다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고 가족과 직장을 뒤로 하고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얻는다. 지은이의 사적인 독백이 읽는이의 내면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가을, 벌 좋은 뜨락에서 책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산문집 두 권이 동시에 나왔다. 남해안의 작은 섬 비진도에서 한 비구니 스님이 쓴 〈꽃담〉(시공사)과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며 망명생활을 했던 고 윤이상 씨의 아내 이수자 씨의 〈나의 독백〉(한겨레신문사)이 바로 그것이다. 두 책 다 '홀로 한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네 삶의 어제와 오늘이 곱게 새겨져 있다.

〈꽃담〉은 30여 년을 도심에서만 살아온 비구니 해만 스님이 외딴 섬에서 1년 정도 홀로 정진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담았다. 스님의 토굴생활은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2월부터 시작된다. 정진을 위해 처음으로 만든 것은 수행계획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기에 필요한 시간표였다. 새벽 2시 30분 일어나 예불과 참선 그리고 108배, 책읽기 등의 꽉 짜여진 토굴 생활을 하면서 스님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임을 터득한다.

'꽃담'
외딴섬 비구니 수행기

'나의 독백'
이역 하늘서 부른 망향가

문명의 세계에서 벗어나 외진 섬에서의 수행과 일상을 독백 형식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섬으로의 초대'에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섬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비진암 생활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손님'에서는 비진암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자연을 담은 섬'에서는 뱀, 염소, 벌레 등 자연에 대한 단상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그리고 '푸른 섬 연등 하나'에서는 집착 없는 삶을 위한 인간적인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값 7천5백원.

'나의 독백' 이수자 지음



〈나의 독백〉(한겨레신문사)은 이수자 씨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북한과 독일, 미국 등지를 오가며 느낀 외로움과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절에 대한 회상 그리고 북산 사회에 대한 감상 등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3년 전 윤이상 전기 〈내 남편 윤이상〉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책에는 자신과 남편의 고향이 있는 남한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남·북한과 독일 등 어디에도 안착할 수 없지만 어디도 원망할 수 없는 서글픔을 풀어놓고 있다.

1부에 실린 20편은 주로 지은이가 만난 북한사람의 일상과 정서에 대해서, 그리고 2부의 13편은 백두산과 보현사 등 북한의 주요 사찰과 명산을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자연속에 숨어있는 영적 힘

'형태의 탄생' 송태욱 옮김



'오감(五感)으로 파악한 사물의 모양'을 흔히 형태(形態)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 형태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신간 〈형태의 탄생〉(안그라픽스)은 바로 그 형태 발생의 원류를 밝힌 책이다. 지은이는 만다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이미지 도상 연구, 지각론 등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스기우라 고헤이(일본 고베 예술공과대) 교수.

그는 "고대부터 일본인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의 힘, 눈에 보이지 않은 생명력의 작용에 대해 '치(ち·생명)'라는 이름을 붙여 존중해 왔다"며 형태연구를 시도한다.

지은이가 형태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시아 각 지역에서 제작된 그림들로 크게 네 가지 부류다. 안구 등 쌍을 이루며 하나로 융합하는 신체의 구조 형태를 통해 우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문자 탄생의 과정 그리고 책이나 지도라는 미디어의 시·공간 속에서 형태가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 책에는 불교관련 그림들도 등장하는 데, 만다라 인상(印相)의 형태만 제대로 살펴도 여러 부처의 지혜나 능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부처의 자비심까지도 알 수 있다고. 또 티베트의 한 불교사원의 벽면에 그려진 십상도(十象圖)에서는 수행의 과정, 즉 마음의 계단을 오르는 길을 읽어 낸다.

이 책은 자칫하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형태'와 '생명'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 고찰로 가득하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현대인 위한 풍수상식

'나도 풍수가…' 홍순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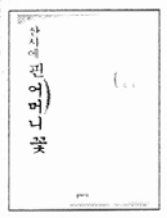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풍수에 관한 지식과 활용방법을 소개한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화산문화)가 출간됐다. 지은이는 문화재청에서 30여 년 간 생활역학 및 풍수지리 조사 연구를 해온 홍순영(66·대한풍수지리학회 이사장) 씨. 그는 풍수지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생활과학이자 지혜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지금도 조상의 묏자리나 집터를 잡을때, 방위의 결정, 사무실과 가구의 배치, 문과 창호의 설치, 잠자리 등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풍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 음택(陰宅), 양택(陽宅), 산수용혈(山水龍穴), 장법(葬法), 택일(擇日)과 이사(移徙), 나경(羅經)의 사용법, 수리길흉론(數理吉凶論) 등을 적은 풍수지리 안내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어둠속에서 찾은 밝은 삶

'산사에 핀 어머니 꽃' 원종 스님 지음



한순간의 실수로 가족을 등져야 했던 어머니. 그 후 한순간도 참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본 〈산사에 핀 어머니 꽃〉(문예마당)이 나왔다. 지은이는 원종 스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본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번민하는 모습을 통해 '참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 책은 부처님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3편이 실려 있다. 이야기들의 핵심은 복잡한 내면의 갈등을 겪던 여성이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지와 내면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회생과 봉사로 숭고하게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행과 고뇌 그리고 불교와의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와 회생과 봉사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값 7천6백원.

김중근 기자

美 전략가가 쓴 '빈 라덴' 전기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 세계에서 반미성전의 영웅이라 불리는 오사마 빈 라덴. 그의 전기 〈오사마 빈 라덴〉(명상)이 국내 처음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인 군사, 테러 분석가로 미의회의 대 테러리즘 특별팀 책임자인 요제프 보단스키가 썼다. 지은이는 1980년대부터 이슬람 원리주의자로부터 빈 라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때부터 '라덴 파일'을 만들어왔다. 많은 관리들과 이슬람 전사들, 테러리스트, 군사령관, 망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현지 언론 등을 자료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글이다.

빈 라덴은 누구인가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선전 포고, 빈 라덴의 음모 등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4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손 혜 숙	아름드리미디어
7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8	초기불교개적사	김 재 영	도피안사
9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이 거 룡	아 테 네
10	거울	원 성	이 레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www.yosiamun.com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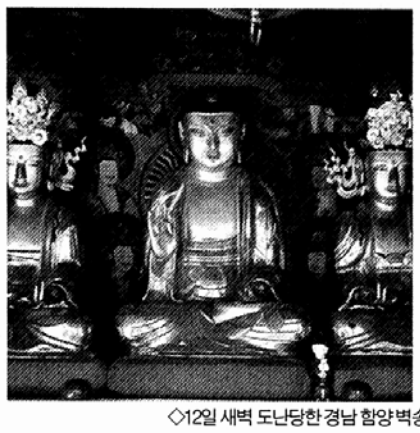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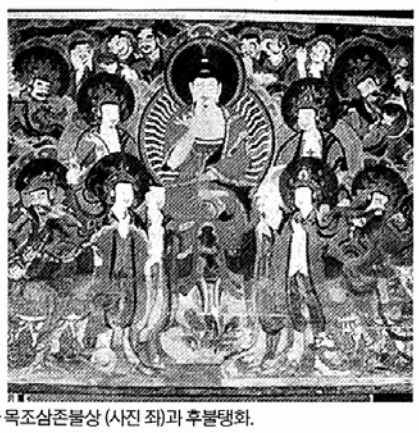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틀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12일 새벽 도난당한 경남 함양 벽송사 목조삼존불상 (사진 좌)과 후불탱화.

국민 모두가 문화재 지킴이로

사회적 관심 높이자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 도난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감소 현상은 불교계와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은 모두 25건(48점)이 발생했다(문화재청 공식 접수 건수).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 13건(22점)의 도난 사건이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어났으나, 지난해 9건(22점)에 이어 올 들어 3건(4점)으로 점차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문화재청에 접수된 전체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 역시 1999년 25건(118점)에서 2000년 22건(827점), 2001년 12건(235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도난 건수에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전체 도난 건수의 과반수(52%)를 넘어섰던 것이 2000년 41%, 2001년에는 25%만이 사찰에서 발생했다. 이는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교계와 문화재청은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2001.3.28)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2001.7)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실시(2002년 5억 예산 배정)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기산점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공소 시효 연장으로 문화재 절취 등 유인요소 제거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청 사범단속인력 강화 △검찰과 경찰에 전담 수사기관 설치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다. 종단 자체적으로도 올 5월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직접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방범 · 방화에 관한 령'을 마련하고, 종단 산하 사찰에 대해 2002년까지 방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위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하인사 말사인 벽송사 후불탱화 도난 사건과 해남 미황사 동자상 도난 사건에서 보듯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처벌강화 · 공소시효 연장
정부에 법개정 지속 요구

사찰 방법시스템 의무화
도난 방지 큰 역할 기대

일선에서 문화재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문화재사범은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다"며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면 문화재사범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잠잠해 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문화재사범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이나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출범 등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과제는 도출된 보호 방안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선초 나한상 2백점 또 출토

5월 1백여점 나온 영월서 … 나한전 건물터도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2리. 속칭, 초로봉 기슭 밭에서 조선 전기 양식의 석재 나한상 300여 점이 한꺼번에 출토됐다. 이들 나한상은 오백 나한상의 일부로 보이며 이를 봉안한 나한전으로 추정되는 건물터도 함께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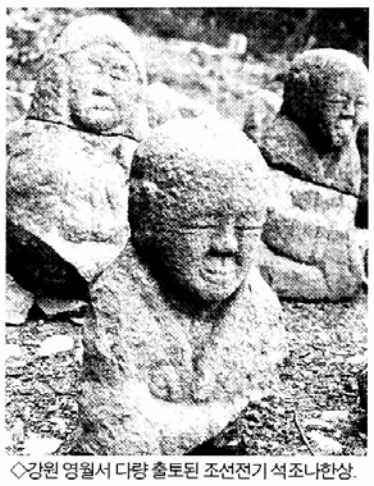
강원도문화재연구소(소장 방재홍)은 지난 5월 초 경지정리 과정에서 나한상 100여 점이 출토된 이 지역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오백 나한상의 일부로 추정되는 200여 점의 나한상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한전으로 짐작되는 건물터도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나한상 가운데 완전한 형태는 10여 점에 불과하지만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전기 석조 나한상이라는 점과 조선 중기 때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나한상도 섞여 있어 나한상의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토된 나한상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제작됐으며 상당수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파손돼 있다. 높이 30㎝ 어깨 폭 20㎝ 안팎의 소형 상으로 4~5점을 제외하곤 전부 좌상이다. 함께 출토된, 등을 맞대고 붙어 있는 소형 석불좌상의 몸체와 흙으로 빚은 소조불상의 볼두 역시 조선 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 분청사기와 백자, 고려시대 어골문과 연판문 등의 흔적이 변형된 조선 초기 기와 등도 다량으로 출토됐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나한상이 집중 출토된 지역의 북쪽에서 확인된 전면 3칸, 측면 2칸(약 9평) 규모의 건물터는 불에 탄 마루 시설 위에서 나한상 20여 점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 오백 나한을 봉안했던 나한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서 다량 출토된 조선전기 석조나한상.

함께 출토된 자기와 기와의 대부분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이지만 15세기와 17세기 양식도 일부 보인다.

권형진 기자

미륵사지 석탑 31일 해체보수

2007년까지 80억 예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31일부터 보수정비를 위한 전면 해체에 들어간다.

2007년까지 모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될 해체 보수정비의 1차 과제는 남아 있는 부재의 정확한 상태 진단이다. 부재 해체와 함께 과학적 보존처리와 부재 보강, 실측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복원 문제는 부재의 상태 확인이 끝난 후 전문가들의 자문 및 고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보수정비를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미술공예실장은 "만약 조사 결과 부재 손상이 심하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방법"이라며 "복원을 포함한 보수정비의 범위는 해체 후 석탑 부재의 상태 여부에 따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 무왕(600~641년) 때 건립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양식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탑으로,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뒤쪽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반쪽탑의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는 6층까지 남아 있으나 정확한 층수는 알 수 없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 창건 1508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2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금당선원 중심으로 선찰 자리매김"

'동화사 역사와 … ' 학술대회

절을 창건한 지 올해로 1508년이 되는 대구 동화사 개산 기념 학술대회가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을 주제로 2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동화사(주지 성덕)와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화사의 역사와 가풍, 인물과 사상, 가람의 특징을 통해 동화사의 '원뿌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동화사의 기틀을 마련했던 심지 스님의 〈점찰경〉 신앙을 중심으로 동화사의 사상적 배경을 살폈다. 김 교수는 "〈동화사사적비〉에 따르면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 화상이 절을 창건했다고 전하나 동화사는 9세기 전반 심지에 의해 창건됐을 가능성이 많다"며 "설사 심지는 중창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절의 기틀은 심지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지의 실질적 창건이래 고려말까지는 〈점찰경〉에 따른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의 가풍과 종지가 곧 동화사의 종지였다"고 밝혔다.

'팔공산 동화사의 인물 및 사상'을 발표한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동화사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불교의 다양한 종파가 종의 본산으로 삼았지만 근세의 흐름은 금당선원을 중심으로 한 선(禪)적 흐름이 돋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스님은 "동화사는 근세에 들어와 석우, 효봉, 성철스님 등 위대한 선승들이 결사한 장소"라며 "이러한 인적 흐름은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선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오늘날 조계종의 기초선원이 동화사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에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 동화사를 빛낸 역대 조사 진영전과 차문화 축제, 사경대회, 사찰음식 시연회 등의 개산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권형진 기자

연꽃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 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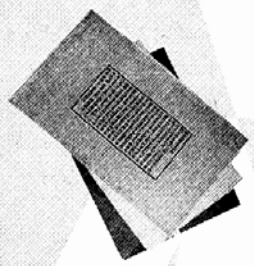
불자용 방석



· 재질 : 면
· 크기 : 약 50cm × 50cm
· 가격 : 20,000원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겹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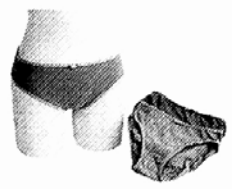


· 재질 : 면
· 색상 :
황토색 (크기 : 41cm×68cm)
밤 색 (크기 : 43cm×58cm)
회 색 (크기 : 38.5cm×58cm)
· 가격 : 각 6,000원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한방속옷 세트

▽여성용
· 소 재 : 면 100% (60수)
· 사이즈 : FREE · 구 성 : 숯, 황토, 쑥
· 3종(숯, 황토, 쑥) 세트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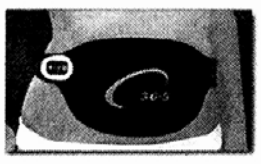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 입니다』



△남성용
· 소 재 : 면 100% · 사이즈 : 95, 100, 105
· 특 징 :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5종(숯, 황토, 쑥, 도토리, 오배자) 세트 : 45,000원
· 3종(숯, 황토, 쑥) 세트 : 29,000원

옥(玉)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우리말 묘법연화경



눈과 귀가 경이롭게 열립니다 !!
7년 연고괄에 내놓는 영인스님의 대장정
법화경의 연꽃과 같은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가 : 270,000원 ⇨ 할인가 : 229,500원

자개모자佛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0호 기능 보유자이신 清溪 宋芳雄 (청계 송방웅) 선생이나전칠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홍송에 5번에 걸쳐 나전칠을 한 후 최고급 자개로써 글자를 새긴것입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어 낮과 밤에따라 그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

· 크기 : 가로 235mm × 세로 560mm × 높이 25mm
· 색상 : 적색, 흑색
· 가격 : 660,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7-8881

"그대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단 말이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⑤③

(52) 선(禪)의 기밀(機密)

이미 150세가 넘은 달마가 나이 어린 종횡을 스승으로 삼고 마주 앉은 모습은 보기에도 딱했다. 하지만 달마는 종횡이 요구하는 대로 구배(九拜)의 큰절까지 올렸다.

격식이 갖추어졌으므로 가르침을 청하는 게 순서였다.

"스승님께 우선 불법(佛法)의 도리(道理)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분명히 밝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횡은 득의만면(得意滿面)해서 대답했다.

"내가 그대를 제자로 삼기로 한 것은 그대의 얼굴을 중의 얼굴로 보지 않고 부처의 얼굴로 보았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밝혀 그대에게 전해 줄 것이오.

나는 일찍이 도문(道門)에 입문하여 도조(道祖)의 도법을 배우고 익혀 왔소. 삼청오행(三淸五行)을 마음과 몸으로 닦아 왔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대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처지이니 삼귀오계(三歸五戒)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내가 전하는 것은 진전(眞傳)이니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오."

나이 어린 종횡에 九拜

"어찌 스승님의 진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삼귀오계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고 따르겠나이다."

"좋소. 그러면 우선 삼귀를 받고 다음에 오계를 전수받도록 하시오. 불(佛)에 귀의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법(法)에 귀의하면 아귀에 떨어지지 않고, 승(僧)에 귀의하면 윤회에 떨어지지 않으며 법륜(法輪)은 상전(常轉)하는 것이오. 이제 그대는 공삼천(功三千) 과팔백(果八百)이 가득 찬 법을 전수받았소. 그리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오."

하지만 종횡의 자신만만한 언동(言動)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달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자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종횡은 불쾌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세히 밝혀 가르쳐 주시기 바라나이다."

"나는 이미 그대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었거늘,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오?"

"제자는 남천축 고향에 있을 때도 삼보(三寶)에 귀의했었습니다. 한데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제자가 배웠던 것은 비록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혹스럽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가 고향에서 배운 삼보귀의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종횡은 인상을 찌푸리며 달마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달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시작했다.

"나의 고향에서는 귀의불(歸依佛)이라고 하면 삼심(三心)을 바로잡고 육욕(六慾)을 깨끗이 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진성(眞性)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을 귀의불이라고 합니다."

정곡을 찌르는 달마의 설명에 종횡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법에 귀의한다는 뜻도 그대가 배운 대로 설명해 보시오."

"그러지요.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하지도 않으며, 몸으로는 뜻밖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입으로는 가식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아 말마다 도리에 벗어나지 아니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고 모든 이치에 어긋남이 없음으로써 나라의 법에도 저촉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귀의법(歸依法)이라고 합니다."

종횡은 설명을 계속하라는 몸짓을 했다.

"귀의승에 대해서는 일신(一身)을 청정하게 하여 삼계(三界)를 초출(超出)함으로써 법신(法身)이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 태(胎) 안에 있을 때는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했는가.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와서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사의 문호(門戶)와 길을 알고 청정법신이 있는 곳을 분명히 밝혀 내어 항상 자재(自在)하고 멸(滅)하지 않는 것이 귀의승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달마는 은근히 종횡의 표정을 살폈다. 종횡의 얼굴엔 감격의 파동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번엔 달마가 종횡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스승님께서는 법륜이 상전(常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륜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엔 3천 번 소리 내어 염불하고 저녁에는 소리 없이 3천 번 염불하면 법륜이 돌게 될 것이오."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린 종횡의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다. 반면 달마는 힘찬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만약 염불에 색(色)이 있고 소리(聲)가 있다면 그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염불이 어찌 도(道)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륜이 항상 돈다는 것은 염불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돈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이것은 단전(單傳)으로 깨달음을 얻어 진규(眞窺)에 심인(心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배운 가르침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허무(虛無)의 한 구멍에서 맑은 기운이 운반되어 오작교(烏鵲橋)로 올라 중루(重樓)로 내려오고 강궁(絳宮)을 경유(經由)하여 단방(丹房)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기운이 방촌(方寸)으로 흘러가고 이어 미려관(尾閭關)으로 들어갑니다. 미려관에서 협척(夾脊)을 통과하여 옥침관(玉枕關)에 이르게 됩니다. 옥침관에서 통천(通天)으로 통하게 되며 통천에서 칠보(七寶)로, 칠보에서 보장(寶藏)으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에서 철고(鐵鼓)를 뚫고 나가고 첨고에서 다시 수미산(須彌山)으로 통하고 수미에서 산림(山林)으로, 산림에서 영산(靈山)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산에 있는 팔괘(八卦)의 감리(坎離)에 이르면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무봉(無縫)의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이 법문은 오직 한 개의 열쇠로만 열립니다. 그 열쇠는 바로 허무현관의 일규가 열려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곳이 열리면 자유자재로 천태(天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법륜이 상전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제자로 삼겠다고 절까지 받았으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꼬'

달마의 고답적인 묘론(妙論)에 종횡은 안절부절못했다. 그런 설명은 일찍이 들어본 적조차 없었기에 충격이 너무나 컸다. 종횡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거 큰일 났는걸. 내가 당초에 늙은 중 보고 일규불통(一竅不通)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 중의 오장육부 속에는 진짜 보배가 들어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도리를 잘 알고 마음조차 맑고 밝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크게 깨달은 사람같아. 내가 눈이 어두워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다? 공연히 제자로 삼겠다고 절까지 받았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꼬?'

종횡은 속으로 크게 후회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습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 달마 쪽으로 다가갔다.

"제자는 이제 일어서시오."

종횡은 달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나 달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오?"

달마는 근엄한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했다.



◇임조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41×82cm, 개인 소장).

"저는 스승님께 정법(正法)을 전수해 주시기를 소원했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싶은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대가 알고싶어 하는 것을 말해 보시오."

"스승님께 묻겠습니다. 이 곳에 하늘(天)은 몇 개나 있습니까?"

"혼원일기(混元一氣)이래 오직 하나의 하늘밖에 없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오?"

"저는 일찍이 사람에겐 누구나 하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떤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의 하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늘을 인정하지 않소!"

"그런 하늘이 없다면 어떻게 하늘의 이치에 합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른 수도(修道)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달마의 이 말에 종횡은 버럭 화를 냈다.

"그렇다면 그대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단 말이오? 안다면 당장 말해 보시오."

달마는 한참 뜸을 들인 다음 종횡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스승님께서 물으시니 설명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불법을 가볍게 누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선(禪)의 기밀(機密)은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스승님을 위해 청향(淸香)을 피우고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횡은 머쓱해 했다. 그러나 달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하늘(天)을 일컬어 일대천(一大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人)을 일소천(一小天)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별자리가 있고, 사람에게는 팔만사천의 털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은 삼백육십일을 셈하여 1년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그에 부합하여 삼백육십의 골절(骨節)이 있고 이것을 일컬어 일주천(一周天)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이십사 구비(二十四 折)가 있으며 음양으로 본명(本命)을 이룹니다. 하늘에 십팔도(十八度)가 있고, 사람의 소장(小腸)은 십팔구비가 있으며 십팔중지옥(十八重地獄)으로 안배됩니다. 하늘에 십이원(十二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후(咽候)에는 십이 마디(十二候)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12개월로 안배하고 있으며 인후를 일컬어 중루(重樓)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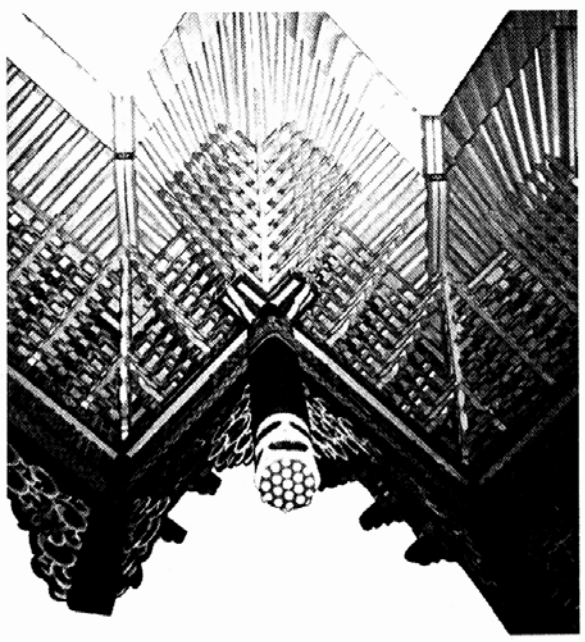
법륜 어떻게 돌리는지

하늘에 오두육성(五斗六星)이 있듯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가 하늘의 오방(五方)에 안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대장, 소장, 방광, 담(쾌), 신(腎)이 있고 이를 오후(五侯)라고 부릅니다.

하늘에는 동두(東斗)가 있어 서두(西斗)에 이르기까지 팔만사천 유순(由旬)이 있으며, 남두(南斗)에서 북두(北斗)까지는 십만구천오백 유순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단전(丹田)이 있으며 왼쪽을 정해(精海), 오른쪽을 기해(氣海)하고 합니다. 미려관을 혈해(血海)라고 부르며 천조혈(天潮穴)을 골수해(骨髓海)라 부릅니다. 통틀어서 사해(四海)라고 하지요. 동해(東海)에서 서해(西海)까지에는 팔만사천 혈문(穴門)이 있고, 남해(南海)에서 북해(北海) 사이에는 일만구천오백 혈문이 있습니다."

달마의 청산유수 같은 설법에 종횡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숙였다. 달마는 종횡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누리공방



수미단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공방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녹용경옥고

경옥고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1)정이 허한 것을 충전시켜 준다[振精]
2)뇌척수와 골수를 보하여 준다[補髓]
3)음기(陰氣)와 양기의 이론적 모체를 조절한다[調眞]
4)타고난 성(性)을 길러 준다[養性]
5)빈혈을 고치고 체력을 증진(강장)
6)정력을 강하게 함(강정)
7)인체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
8)정신력을 충만하게 한다
9)오장을 모두 좋게 만든다
10)심장을 강하게 함(강심)
11)소변을 좋게 함(이뇨)
12)인체의 독성을 제거함(해독)
13)피를 깨끗히 함(精血)
14)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움

녹용경옥고
30일분<1개월>환. 18만원 60일분<2개월>고. 환 36만원
문의전화 02) 742-5872 / 016) 231-5872

"인성·체험교육 프로그램 특화 급선무"

'종립학교를 가다' 연재를 마치고

좌담 :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

본지는 지난 6월 13일자 322호부터 17회에 걸쳐 '종립학교를 가다'를 연재했다. 전국 27개 종립 학교를 소개했다. 그동안 기사화되지 않았으나 소개할 것도 많았고 행간에 숨은 아쉬움도 많았다. 기획을 마치며 좌담을 통해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을 묶었다. 좌담은 종교시설과 포교과제, 교육프로그램, 교법사의 위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참 석 자

이원주(명성여고 교장)
이학송(광동여고 교감 · 사회)
박영동(동대부고 · 전국교법사단장)



◇종립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내 법당시설의 확대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진은 10월 26일 명성여중에서 열린 교학발표 수업장면.

이학송: 사립학교의 80%이상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세워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요예배를 보는 등 왕성한 종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립학교에서는 최근 광동종고가 지난달 말 법당을 완공하는 등 종교시설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건물로 분리된 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해 일요법회 등 신행활동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내 법당문제 해결



이원주

"기독교 10분의 1 불과 종립학교 수 늘려야"

이 종립학교 발전의 상징적 출발점이 아닐까요.

박영동: 서울 소재 종립학교의 경우 교실을 개조해 법당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출입이 어려운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교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종립학교가 가지는 정체성의 구심점이 바로 법당입니다. 학생들이 3년등안 생활하면서 법당에 들어가 보고 교정 내에 봉안된 불상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레 훈습이 되어 불교에 익숙하게 되고 인성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내에 불교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기게양대 등에 성상을 봉안하는 것은 오히려 존경심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학송: 교법사는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거나 이미 불교적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학을 전공해 학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고 널리 알리는 전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파라미타 등 종단차원의 청소년 포교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아직까지 교법사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원주 교장선생님이 동국학원 초대 교법사로 부임하셨으며 교법사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이원주: 저는 1968년 동국학원 초대 교법사로 임명을 받고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법사는 가르칠 교(敎)자를 써서 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군법사, 교목, 군목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9년 종립학교연합회에서 지금의 교(校)법사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즉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운 것이지요. 특히 동국학원의 경우 지난해 이사장 스님이 법사 인증서를 수여 교내에서 교사와 법사로서의 위상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박영동: 1968년 6명이 처음으로 교법사에 부임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국 불교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 및 일반 청소년 교화사업과 단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9년 교법사회가 창립되었고 지금은 1991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단에서는 교법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수련대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학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법사들은 다른 선생님과 동일하게 교사로서의 업무를 보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인근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항상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원주: 저 자신도 교법사로 오래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교법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이 공식적인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단차원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종단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학송

"탁본·사경체험 등 문화포교 바람직"

이학송: 최근 군법사 출신 교법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법사는 승려신분으로 의식을 모두 집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혼상례 전반에 대한 종교적 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법사단에서 공동 집필로 청소년 포교 관련 책도 발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교법사는 불교계 최고의 재가 엘리트라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박영동: 교법사들은 종립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을 위해 교법사단 차원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교학 발표회를 통해 교학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서로 공유하며 종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송: 종립학교는 설립정신과 활동영역에 있어 인성교육,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CA 전일제, 재량활동 시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합니다. 지역 사찰에서 탁본체험, 사경체험 등 프로그램을 만들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면 학생들 또한 여유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활용해 종립학교에서는 가족, 학급별로 1박 2일 정도의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자연스런 포교인 셈이죠.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 계발로 기존의 학교가 관리되는 것만큼이나 종립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원주: 서울의 S대학의 경우처럼 기독교 단체가 설립하지 않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립학교도 이같이 사찰에서 설립하지 않고 재가 불자의 원력으로 세워진 학교를 찾아내어 불교교육연합회 가입을 권유해야 됩니다. 종립학교는 현재 기독교 재단 학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종립학교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영동: 경남의 S고처럼 법당도 있고 교법사도 있지만 불교교육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스님들이 신도들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면 종립학교로 편입을 권유해야 하고 사암연합회나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학송: 교육계에서 항상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지역사찰들이 학생들에게 개방된다면 종립학교들은 최상의 인성교육의 환경을 갖게 되는 셈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인식 전환과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박영동: 최근 신문에서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립학교 학생들은 인성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를 예를 들자면 작년부터 학생선도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교법사의 상담 역할이 컸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 부장 및 교학부장을 맡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모든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법사님도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카운슬러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학송: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탓에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인지 사찰 학생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내 불교 동아리들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학생들을 절에 안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스님들이 신도교육을 통해 법회에 참석하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박영동: 최근 교육과정이 체험학습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찰과의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스님들도 학교를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하고 사찰 또한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더불어 사찰에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넓혀 학생들이 자연스레 사찰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본사 사암별로 관내 학교의 불교신자 선생님과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자 교사들에게 상도주고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등에 가입을 유도해야 하지요. 교사불자연합회가 활성화 되면 이들이 파라미타와 같은 청소년 운동에 동참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청소년 포교로 그 효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 발굴이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가르칠 자신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원주: 교사불자연합회를 활성화 시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불자교사들이야 말로 포교의 황금어장인 학교의 훌륭한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전 불자교사의 교법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 수업시 불교적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지요. 수련회,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종단에서 교법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년 퇴임한 교법사들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상임포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두어 법회에 지도법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지원해 주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박영동

"학생들 이용 쉽게 독립법당 갖춰야"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사 넘쳐 '이선옥의 선무건강법'은 쉽니다.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essence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3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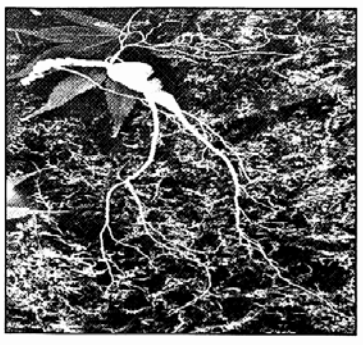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敬愛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濟度와 佛法으로 奉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回復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섭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問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안팎 둘 아니게 조복받아야 고통없어

세상사가 모두 인과법인지요

문 저는 모든 현상을 연기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자입니다. 즉 행동이나 생각이나 현상적으로나 현재 제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앞서 있었던 인(因)의 결과가 현재를 이루고,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지으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연기(緣起)라고 이해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물질적인 현상은 이렇게 해서 대략 이해가 되지만 정신적인 현상은 이해가 되지 않기에 문의 드립니다. 모든 현상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지도 모두 어떤 인의 상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 그냥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지구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웬만치 납득하고 이해했다고 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살게 하고 형성시켰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하는 양 갈래 길을 다 자기 한 손에 쥐어야 만이 그게 부처님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같고 우연히 사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잠시 전에 누구한테 말을 잘못했다면 지금 그 잘못이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을 해서 말을 잘 하고 생각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한 그 결과가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간적인 계산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도 열고 있죠? 발 움죽거리죠? 냄새 잘 맡죠? 다 이렇게 뚫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다 보고 행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입니다.

환생 있다면 제사 왜 지내는지

문 우리 인간은 죽으면 과거 생과 현생에서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서 해탈을 하든가 육도 윤회를 반드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지 수년 혹은 수 십 년 되면 각기 업에 따라 이미 천상이나 인간 혹은 짐승으로 환생하여 태어나 있거나 또 다시 환생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귀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혼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특히 음식물을 차려 대접을 융숭히 하려하는 것은 조상님들을 숭모한다는 뜻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고 49일이 지난 후의 일들을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 원소는 남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심어서 먹어도 씨앗이 남듯이 그 에너지는 꼭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 그 에너지는 에너지 주장자로 화합니다. 에너지 주장자로 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임제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네 주장자가 있다면,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화하지도 않았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주장자를 뺏어올 것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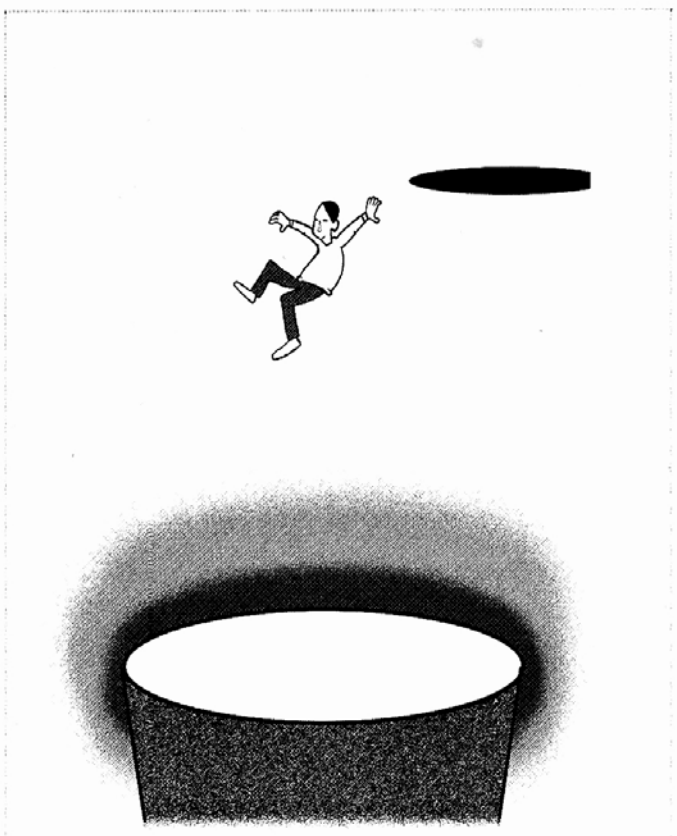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없어지는 거지 그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 모든 게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이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영계성을 제거하려면 그 자리에 맡기고 관(觀)하시라는 겁니다. 진실로 한번 관할 때마다 하나 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도 없고 고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 몸뚱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공생(共生)입니다. 세포 하나의 생명도 모두 살아 있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하고 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하고 갑니까. 근데 같이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쌈박질이 나서 살이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고 또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온통 병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영계성이 나오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크게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 생각의 공덕을 그냥 뭉텅 쌓아 놓으면 자식들한테까지도 미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부모가 그렇게 덕을 쌓아 놓은 것이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게 자식에게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그 자식 대에서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소는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지면 그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까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듯이, 별왕이 있어서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 식구가 됩니다. 나쁜 인연으로 식구가 됐으면 서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고통을 주고 싸우고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벌여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날 관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北에 살아 계셔도 제사 지내 드리세요"

苦는 운명탓 아니라 함부로 산 결과

그러니깐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자손들도 좀 착하게 하려면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해 나가신다면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그 뜻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일은 같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같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이익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를 안 보면서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북에서 돌아 가셨는지 영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았다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리세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배가 고프게 사시더라도 배가 부르게 사실 거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자식의 그 정성으로 부모가 배고프지 않게 사시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제사를 지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불이 나서 다 죽을 상황인데 다 살았답니다. 왜 살게 되었느냐 하면, 예전엔 먹을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물을 뜯어다가 보리쌀을 빻아서 떡을 해서, 집안에 조상들이 많이 죽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먼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불이 났는데 자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저 그릇 같은 것만 타고 다 꽨찮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동네에서는 전부 나물이라도 캐서 하다 못해 없으면 죽이라도 쒀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됩니다. 그저 요만한 정성을 들이더라도 의심하시지 마시고 또 요만한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생각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아이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내가 저 쪽의 주인공에 가서 그저 환히 밝게 해 달라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관을 한다면 자식들한테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의심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시면 결국은 그 자손들에게 밝은 빛을 비쳐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사 때마다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또 궁하든 부자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믿어야지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상님도 그렇고 나라까지도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심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문 스님의 법문을 듣다보면 무심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듣게 됩니다. 머리로는 그 뜻을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심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조상님 제사
> 정성껏 모시면
> 결국 자신과 자손들
> 발전시키는게 됩니다

답 무심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둘로 보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한 군데 놓는 것이 무심의 도리입니다. 나를 깨우쳐 가지고도 둘 아닌 도리를 모르면 자꾸자꾸 미(迷)해지고 또 나를 깨우치고 나서도 정성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다시 놓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심의 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꾸 놔야 하는데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걸 세우지 않고 만물 만생과 더불어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살림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진짜로 하고 실천하는 데에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노심초사 게으름 피우지 않고 길을 걸으나 변소엘 가나 나오나 들어가나 딴 생각이 하나도 없이 항상 들이고 내는 그 생각만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는 한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가지 꿈 꾸었는데…

문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에 있는 절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시루에다 떡을 쪄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서 고기를 한 마리 띄워서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새까만 엽전 두 개를 주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성불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꾼 꿈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 주시옵소서.

답 한 시루의 떡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둘 아니게 돌아가는 걸 말입니다. 고기 한 마리가 물에 담겼다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물에 고기 한 마리 담긴 것과 같습니다. 흘러 도는 물에 고기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돌고 있다는 표현이죠. 돈은 지금 찰나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돌고 도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찰나찰나 고정되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고 맥박 뛰듯 돌아가죠? 시공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선을 수행하고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돌아갈 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용도대로 놔버려야 합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되게 알기 위해서고 깨닫기 위해서이지 꼭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에 착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공부하는 과정을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꿈으로 보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도리를 공부하는 중에 깨우침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스스로가 모르니까 환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상이 나타나거든, '아하! 나를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하느라고 이런 꿈을 꾸는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뭐가 보인다, 잘 보는 사람이 "당신 한 달 후에 뭐가 생길 거야. 병고가 생길 거야, 잘 될 거야"한다 해도 그런 것에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가 놔야 됩니다. 좋아하지도 말고, 언짢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언짢긴 뭐가 언짢습니까? 마음먹기 달린 거지, 상대방이 언짢다고 해서 언짢은 게 아니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꿈에 그렇게 보였다, 또 꿈을 나쁘게 꾸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에 가다 엎어졌으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겠죠. 그와 같이 언짢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소견일 뿐입니다. 언짢다고 생각마세요. 그리고 그것도 '아하! 언짢다고 생각이 들면 언짢은 것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건 주인공밖엔 없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이게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처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끄달리지도 말고 '나는 부처가 안돼.' 이런 생각도 하지말고,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원하지도 마세요. 그래야 만이 부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되신다면 한 발 내려딛고 보살행을 하면서 천백 억 화신으로서 보살행을 한다 이 소립니다.

잔인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문 참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거칠고 잔인한 생각 또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잘

☞ 20면으로 계속

가족 또는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업보 벗어나려면 잠재의식 다 녹여야

☞ 19면에서 계속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생각도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더 떠오르고 그냥 놔두니까 너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고의적으로 하는 생각도 아니고 누군가가 생각을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습을 없애려고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그 습이 매우 질기게 없어지질 않아요. 어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염주는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백팔번뇌를 비유해서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 그걸 백팔 번뇌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목석이죠? 육체가 없으면 무효죠?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나는 것을 망상이라고만 밀어붙이겠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봐야죠. 팥죽을 끓이다가 보면 익으려고 할 때 팥죽 방울이 수없이 올라오죠? 그럼 그걸 다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팥죽 방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팥죽이 끓다 보니 익으려고 나오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팥죽 솥에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망상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다. 팥죽을 익히기 위해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이 그건 성장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일임해서 놓으라는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하면서 떨쳐 버리려고 몸뚱이로 아무리 해봤자 몸뚱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데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망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을 테죠.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그래서 망상은 바로 여러분이 물리가 터질 수 있게 하는 수련이자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습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습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왔던 관습으로 그런 거니까 그 관습을 없애라, 습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라오려라도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그렇게 그냥 놓아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업식이라고 이름해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는 걸 보면 웃음이 슬그머니 나와요. 인간으로서 확딱 벗어나지 왜 저렇게들 못 벗어나고 저러나 싶고, 그냥 자유스럽게 뛰어야 되는데 자유스럽게 뛰질 못하게 마음을 외려 붙들어 매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자유스럽게 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오기까지 엄청난 그 과정을, 수 없는 억겁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고 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붙어서 깜박거리듯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아주 가깝게 자기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애써 바깥에서 찾으려 하거나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참 나라는 내 자부처가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믿고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나' 세우지 않고 모두 놓는게 무심도리

망상은 성장재료…끊으려 말고 되놓아라

스님들이 목탁을 치는 이유

문 다름이 아니라 스님들이 왜 목탁을 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불교신자라는 분도 명쾌히 답을 해주지 못해서요. 황당한 질문인줄 알지만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답 우리 스님네들이 예불을 모실 때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뜻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또는 종을 치면서 예불을 모십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스님들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참 묘한 법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자인 선장이 종소리를 들을 때 깨우치게끔, 또는 부처님 상호를 볼 때 심안이 밝아지게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바로 예불을 올리는 사람, 각자 여러 스님들과 각자 여러 신도님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이 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양쪽으로 목탁 소리가 나게 하는 건 여러분의 귀요, 머리는 두뇌라고요. 목탁채로 여러분 머리를 깨게 하려고, 그 목탁이 당신 머리를 치는 게 지금 머리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 것을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숨은 뜻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문 주변을 바라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고통이 많습니다. 본심은 청정하다했는데 중생의 고통은 왜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애초의 본래 여여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순 없는 건지요. 성인들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생들에게는 고통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까. 불성이 온 우주에 깃들어 있다면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불국토로 화하는 그 끝은 언제일까요. 혼란한 세상과 고통스런 삶들을 알수록 눈물이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지 대 자비의 답변을 구합니다.

답 지금 지구가 초월해서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의식을 갖고선 그것을 쥐고 매달려서 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업이 생기는 거고 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자꾸 벽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인(因)을 만드는 거고 과(果)를 만드는 겁니다. 삼독을 녹이지 못하고 착을 두고 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과를 받을 수 밖에요. 선의 인과든 악의 인과든 인을 지었기 때문에 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착이요 악도 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을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역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요, 때려도 자비요, 때리지 않아도 자비요, 사랑을 해도 자비요, 사랑을 안 해도 자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상이나 부처님의 조상이나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어디 고정돼 있지 않으며, 조상의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으며, 우리들의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천년 전 그때의 역대 부처님들 마음과 역대 조상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낮게 보고, 무엇을 높이 보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을 즐거울이라 규정지을 게 없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병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업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유전성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생사가 걸릴 게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중(中)세계에서 알아야 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네가 이 세상에 나온 때문인 줄 알아라, 네가 나왔으니 수억 겁을 통해서 너를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너를 보배로 삼아라. 너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들어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한 발짝 떼어 놨으면 또 한 발짝 떼어놓게 되고 연방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도리를, 그 흥겨운 도리를 모르고 항상 집착에 잠겨 있고 관습에 잠겨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별하면서 길을 걷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 부적을 해야 삼재가 들어도 애고가 안 생긴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는데 부적을 해 가지고 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고, 날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살기 허덕거리는데 거기에다 그런 걱정까지 덧붙여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렇게 가당치 않은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뿐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과 밖을 다 조복을 받아라.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라, 바깥에 주어진 상황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닥치는 대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할 거 있으면 하고, 분수에 넘치게끔 쫓아가서 뺏으려고 하지도 말고, 분수에 넘치게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앞에 닥치는 것은 버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다만 내 앞에 닥친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놈도 그놈이요 악으로 생각하는 놈도 그놈이니 악으로 왔다고 생각도 말고 선으로 왔다고 생각도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를 몽땅 다 그놈이 한다고 생각하고 놓으신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그냥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되요.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죠. 흐뭇하고 묘하고 참으로 진실한 자기의 보배주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써먹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깐 삶도 가난한 겁니다. 혼자 무거운 거를 들려니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행해 나가신다면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여 자비와 지혜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 매주 1천500여부의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 싣고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이들을 찾아가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 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태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 일급호텔(건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 운젠(1박 운젠지옥,무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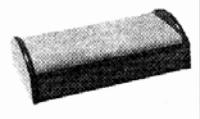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 경주 백운암
054)748-353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정진,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53~60세 전후의 불자여성으로 마음이 참하시고 순수하신 독신으로 사찰에 위탁 중이신 보살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 연금 수급자
▷ 장난 전화 사절
019)550-5488

부전스님을 (비구) 모십니다
▷ 대구 팔공산 천년고찰
011)9360-7922

승합차 밴을 가리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절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전국 어디나 상관 없습니다
063)561-3260
011)385-1885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삼천사 부전스님 구합니다
02)359-7766
02)353-3004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대구 시내
053)743-7070

신심과 원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016)308-2827
033)635-1401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하시며 지내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1)508-7757
016)527-01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파주 약수암
031)952-4801

경북 봉화에 있는 천년고찰에서 기도하며 공양주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
054)672-7579
011)9359-4080

산명 수려한 관음 기도 도량 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족 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불문)
054)751-2283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 신심깊고 스님과 함께 수행하며 원주(경리女) 하실 분 모십니다. (25~50세)
· 비구니 행자 스님 모십니다 (1명)
02)395-1222(홍은동)

사무원 보살님 구합니다 거제도 노자산 혜양사
055)633-2178

평생같이 수행하실 분 모십니다
비구,행자 스님하실 분 노부부나 노보살님 또는 기도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054)632-3184

고급 보이차
圓茶鐵餠 · 七子 鐵餠茶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2)3491-4453
017)406-6682
茶 道 里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 60세 미만
031)885-0168

불교신자 동지 같은 종교로서 혼자 있는 분 신심으로 이끌어 줄 불자 찾습니다
▷ 56세 이상
011)775-8070

소원성취되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원낙 훼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주 6만원 담주 5만원
인감도장 5만원 용도장 8만원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올리겠습니다
부 처 골 **지 장 암**
054)383-8553 / 011)9585-4903

원조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초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

모 집
부전 소임을 보며 전통적인 불공시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스님을 약간명 모집합니다
· 강사 : 동주(元明)스님
불교의식집, 승가의범 저자)
· 주지 : 성오 스님
서울 대방동 총원사
연락처 02)822-1990
핸드폰 011)9646-1990(동주스님)

불 사
宗門의 佛弟子로 반본환원 입전수수라. 佛法을 회향하기 위하여 서원을 세우고 인연있는 佛子님들을 釋을 지도하고져 大衆釋院을 開院하기 위하여 발원하니이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정성어린 불사가 이루어 지기를 성원하는 바입니다.
法師 : 大悟
HP 011-337-54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고양시 중심 상가
- 규모 : 160.8평(빌딩 7층)
- 시설 : 법당 80평, 주방과 방 5칸, 명상실 1칸, 목욕실 1칸, 사무실, 가스냉난방 완비, 최고의 엠프시설, 시설비 2억 투자
- 특징 : 지하철역 근처, 법당 앞 공원, 이파트 숲 중심
- 가액 : 3억 5천만원(전세 1억 8천 포함됨) 답사 후 절충가능

011)306-0177
031)978-05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 근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임법당, 후불탱화, 신간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5000만원

051)331-9937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건물 : 4층 건물 4층 전관(옥상사용가, 남창)
- 건평 : 약 40평 법당, 큰방 2, 작은방 2, 주방, 욕실
- 가액 : 참 5500만원 전세 3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 : 삼존불,후불,신중,지장,탱화, 법종 기타 불교용품 및 광고물
- 특징 : 전철시 도보 3분거리, 6차선 코너 건물

051)317-00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중동(부천역 중동역 사이) 교통 및 주변 여건 좋음
- 건물 : 5층 건물 5층 옥상 사용 함 시설은 A급
- 평수 : 70평 법당 40평 방 5개

법당 : 석가모니불탱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단탱화 산신단탱화 영가단, 인등
- 보증금 : 14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32)666-7463/017)289-7464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찌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찌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옆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춤장연주(법회 · 산사 음악회 · 결혼식)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행자 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이 회주소임을 맡고 있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의 3대 지표아래 분원인 감포 연봉산 해광사를 행자 특별교육도량으로 열고 의식있는 예비스님(행자)을 모집합니다.
중단수계 후 모든 공부수행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조계종)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문의 011-9852-0075 (총무스님)
통신과정, 인터넷과정 모집 중 TVbuddha.co.kr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동 불원정사
- 평수 : 3층 건물 중 3층 40평 옥상 단독 이용
- 보증금 :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천오백만원

「스님 해외 유학 관계로 급안내」
011)321-5559
031)721-3676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 2동
- 건물 : 주택(1층) 법당, 방
- 내부시설 :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호신불, 에어콘, 보일러시설
- 가 액 : 전세 1300만원

053)653-484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노고재 보현산
- 대지 : 238평, 건평 : 13평
- 가액 : 2,800평
- 특징 : 부처님 봉안, 산세수려하고 작은 계곡과 전기수도, 조경 완비 참선 수행 정진 하기 좋은 곳

011)540-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온천장 근교
- 법당 : 삼존불, 지장 108불
- 특징 : 교통 및 조경 조건 최적 45평, 큰방 2개, 대형응접실, 주방, 부산포교적지
- 보증금 : 3천만원 월 20만원 2천 5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11)563-44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5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40평
- 가액 : 2억
- 특징 : 산속 기도터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임진각 부근 아담한 산 밑에 나무가 우거지고 교통이 좋으며 기차는 50년만에 임진각까지 오고 대지는 15년전에 국방부 땅인데 3000평 사용 승락서를 받고서 대웅보전,산신각,요사2채 현재 30평 규모에 벽돌집을 건립중이며 주지 노스님이 병마가 생겨 가람수로에 힘이 들어서 뜻있는 비구,비구니,법사,종단 초월하여 인원이 적당하면 주지로 추대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삼존 석불님을 모시고 있음
연락처 : 평화통일사 031)925-7031
휴대폰 스님용 : 011)9941-581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평구청 지하철역 30m
- 평수 : 35평 방 2개 4층상가건물 3층
- 구조 : 본존불 본존탱화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중전 신중탱화 영가단
- 특징 : 주방살림 가능 집기일체 에어콘설치
- 보증금 : 2천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가격절충

032)506-2369
018)350-5807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일원
- 임야 : 5000평 대지 : 700평
- 기타부지 : 400평, 주차장 : 무한정
- 법당 : 20평, 칠성각 : 10평
- 산신각 : 1동, 요사채 : 2동(50평)
- 버스종점 보도로 5분
- 계곡 청정, 산세수려, 70년
- 가액 : 2억 3천

017)855-9551
055)637-1201

사찰안내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230평
- 법당 : 11평 1동
- 요사체 : 방 4칸(40평) 1동 주방 5평 1동
- 가액 : 1억 3천만원

011)488-3339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포교원개원 청담 1동
www.bulljchon.com 한글도메인 수산스님.com
무료 역학 상담 氣 치료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원앙예식장 후문 맞은편 4F
문의처 02)3444-4376
02)3442-419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평리동 포교당 산지청
- 전세 : 2천 2백만원
- 보증금 500 월 30만원
- 아파트 밀집지역
- 철학을 볼 줄아는 사람은 유리

011)819-4113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요사, 삼성각
- 가액 : 6천오백만원

011)815-4060

사 찰 안 내
포교당안내
- 위 치 : 경기도 광명 시내 (지하철역 300m)
- 법 당 : 50평
- 보증금 : 700/월 49만원
- 시설비 : 1천만원(시장을 끼고 있으서)
※ 포교의 최적지 임
- 위 치 : 천안시 소재
- 대 지 : 500평(임대)
- 법 당 : 25평(등기이전 됨)
- 요 사 : 40평 2동
- 양도가 7,000만원
※ 뒤에는 산이며 포교최적지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찰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
- 대지 : 450평 전답 : 2100평
- 법당 : 30평, 요사체 : 30평 심야보일러, 신축 3년, 7층석탑, 미륵관세음 15자 종, 운판, 청정계곡접, 미시령터널 착공
- 가액 : 2억 7천(주인직접)

033)462-8073
011)699-6600

사찰 안내
- 경남 사천 사남면 와룡산 법성사
- 2층 법당, 삼존불
- 1층 요사체, 산신각 별도로 있음
- 경치 좋고 수려하고 조건 좋음
- 대지 : 158평 • 건평 : 65평
- 가액 : 8천만원
- 전세로 할경우 3000만원

011)834-9989
(비구니스님 환영)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옆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0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절충가능

상 원 사 02)895-7512
011)230-7511/033)442-7827

사찰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법당 22평, 산신각 5평
- 창고 8평 요사채 40평
- 특징 : 남향 임법당으로 단청 하였슴
- 가액 : 1억 천만원

017)845-7090

사찰(급)안내
- 위치 : 천안지역
- 법당 겸 요사채 : 40평
- 산신각 1동, 주지실 1동 화장실 1동, 창고 1동
- 가액 : 7천만원

011)9576-3936
「주인직접」

포교당(암자)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근교
- 평수 : 건평 약 20평
- 임법당 15평,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 특징 : 기름 보일러
- 가액 : 전세 1,500만원
- 시설비 일체 권리금 없슴

016)294-5264
「주인직접 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4천

• 융자 2억 가능 도심에 접한 산속의 아늑한 1급 도량이며 다용도(군당, 기든농장) 사용가능함

- 위치 : 경남 양산
- 법당 : 13평 지장전, 삼성각, 관음전
- 요사 : 5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수원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310평
- 가액 : 3억 5천

※ 시내 산속에 있으며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포교 도량으로 최고급 자연 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전세)안내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사용면적 150평
- 법 당 30평
- 시설물 일체 사용
- 시유지 불화가능
- 방 4개

017)206-0789
011)335-825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경주 감포 10분거리)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 임법당포함, 건물 2동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495-775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 헌병대 옆 3층 건물 3층 총 130평 법당 70평 그외 방5개 (살림방 2개 및 공양간 시설 일체완비)
- 부처님만 모시면 불공가능
- 불교대학 및 불교 강좌시설로도 가능
- 전세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51)469-0605
011)843-5672

영월 하동면 내리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렸하고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 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 관계로 급 안내 답사 후 절충

033)378-2101/018)533-7780

사찰을 운영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전세가능)
- 위치 : 충남 아산 온천 주변

011)701-0140(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부곡 온천
- 대지 : 670평 • 법당 : 20평
- 산신각/용왕각/요사채 30평
- 신축 주택 2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산세 좋은 영험기도 도량
055)521-2028
017)586-3280

포교당안내(임법당)
- 위치 : 서울 • 건물 : 구옥
- 평수 : 38평
- 주변이 녹지이며 전망이 아주 좋음
-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전철역 10분거리
- 가격 : 1억 2천만원

016)481-6909

절터 및 가족모집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단성초등학교 뒷산, 준농림지
- 답 : 1,055평
- 특징 : 약수물, 진주에서 15분 거리, 대전강 고속도로 단성 인터체인지 일반 국도 4차선 중심지

가액 : 평당 십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548-5980

사찰 안내
- 위치 : 양평, 양수리, 서종 북한강(잠실30분거리)
- 평수 : 대지 650평, 남향
- 건물 : 60평, 인법당 20평 포함
- 전세 : 1억 5천, 매매 가능
- 특징 : 뒤산, 앞계곡, 연못

011)755-0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 평수 : 30평
- 권리금+전세금 4천오백(절충가능)
- 시설완비, 즉시 입주가능
- 맡아서 운영하실 스님 모십니다

018)677-148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580평 법당 15평
- 삼성각 4평 요사채 35평(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잘어우러진 명당터 임, 교통편리
- 가액 : 1억 2천만원

043)832-478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북외이주권계로 8천 5백만원
※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6)207-5600
017)844-944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4억 8천

051)245-4012
011)617-4013

베트남에 첫 한국 사찰 세웠다

호치민시 관음사 7년만에 정부 승인
매달 스님초청법회…교육등 복지사업



◇관음사는 9월부터 베트남 승려협의회로부터 초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현지 학생 75명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정부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한국 사찰이 개원돼, 현지인과 교민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포교와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호치민시에 개원한 관음사(주지 정인)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최초의 한국 사찰로 현지 교포 사회에서 정신적 귀의처로 각광받고 있다.

개원법회가 열렸던 7월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의 법회를 연 것을 비롯 매월 한차례 한국의 스님을 초청, 법회를 개최하는 관음사는 지난 14일 고운사 주지 법조스님 조실 추대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사 개원을 위해 7년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주지 정인스님, 관음사 총무 보각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베트남 승려협의회 회장 탑틴 스님을 비롯 교민불자, 현지인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음사는 개원 당시 20여명에 불과하던 법회 인원이 한국 사찰에 거는 현지의 기대를 반영하듯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불교와는 사뭇 다른 베트남 불교 의식에 이질감을 느껴오던 불자 교포들은 반가움에 눈물을 흘릴 정도. 법당을 찾아 1000배를 하거나 참선을 하는 이들과 관음재일, 약사재일, 지장재일, 일요법회 등에 참석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관음사 주지 정인스님은 "불교 조각일로 베트남에 왔다가 베트남의 한국인 2세, 3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어 이분들에게 희망과 신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한국 사찰 건립을 발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종교시설을 인가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7년의 노력 끝에야 겨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그나마 지금의 법당은 베트남승려협의회 회장인 탑틴스님의 절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관음사는 현재 진행중인 3층 법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12월경부터는 매달 1회 한국 스님 초청 법회, 포교와 복지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베트남에서 지원을 받았던 시절이 있듯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시기"라는 보각스님은 "3천여명에 이르는 교민들에게는 마음의 귀의처로 또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복지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부터 현지 승려협의회로부터 초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형편이 어려운 현지 학생 75명의 학비와 교육 일체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인 2세, 3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한 재정 충당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중이다.

개원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각스님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적 후원과 각종 불서, 법문테잎, 불교용품 등이라고 귀띔한다.

앞으로 전쟁에서 희생된 영가 천도재, 초심자 교육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인 관음사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와 포교로 베트남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55)674-417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원문화재단이 19일 조주선다비 제막식 이후 중국 스님과 불자, 차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원팔정다선법(茗園八正茶禪法)'을 시연해 갈채를 받았다.

"무상선사 중국 전통법맥"확인

한국 '조주선사 선차시비 건립 사절단' 訪中



◇무상 선사

중국 선종의 천년고찰 백림선사(柏林禪寺)에 19일 세워진 조주(778~787)선사 기념비에 중국불교의 500나한으로 모셔진 신라의 정중무상(684~762)선사가 중국 선종의 정통 법맥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됐다. 한국의 '조주선사 선차 시비 건립문화사절단(단장 진제 · 동화사 조실)'과 중국 '백림선사(방장 정혜)는 10월 19일 하북성(河北省) 석가장시(石家庄市) 백림선사 경내에서 조주선사의 선차(禪茶) 기념비(높이 2m) 제막식을 가졌다. 한중 양국 불교계가 조주선사와 무상선사의 선과 차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을 기념, 이번에 조주선사가 선풍을 드날렸던 조주 관음원의 전통이 살아있는 백림선사에 법맥까지 기록한 비석을 공동으로 건립한 것. 이 기념비의 비문에는 신라 왕자 출신의 '정중무상 선사가 일찍이 서촉 땅의 주인이 되어 문하에 마조도일을 두었다(淨衆無相 曾主蜀度 門下高徒 馬祖道一)' 는 글을 기록, 정중무상 선사가 달마대사로부터 마조도일에 이어지는 중국선맥의 한 중심에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무상선사는 중국의 500나한 가운데 유일한 신라인으로 455번째 모셔진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 있으며, 중국의 정중종(淨衆宗)을 일으킨 선사로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7파가 그에게서 비롯됐다.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 월간 '선문화' 회장 동광스님, 하북성 종교청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행사는 헌다에 이은 제막식, 한 · 중 전통다도 시범(表現), '조주 선다일미 사상' 국제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중국 하북성=김재경 기자



◇27년 5개월만에 1만일 염불결사를 마친 설산스님의 만일염불 회향법회가 25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됐다.

설산스님 만일염불 다시 발원

25일 회향법회 9백여명 참석

"지옥세계 아예 없고 나무아미타불, 사람마다 금색광명 나무아미타불, 모든 이들 차별 없고 나무아미타불 … "

설산스님 만일염불 회향법회가 25일 금강산 건봉사(주지 영도)에서 9백여 염불행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오전 10시 30분 건봉사 경내에서 시작된 만일염불 회향법회는 염불 1만일(27년 5개월)을 맞는 설산스님의 '나무아미타불' 정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어 이번 회향법회에 동참한 도선사, 능인선원, 염불선원, 정토사 신도들과 전국만일염불회 회원들이 목탁과 아미타불 염불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염불 대동한마당을 열고 74년 5월 설산스님이 시작한 만일염불 결사를 회향했다.

이날 1만일 염불결사를 함께 참여한 대중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설산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며 "회향법회는 새로운 만일염불 결사를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서울 정토사에서 만일염불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한·몽 불교 친선협 내년봄 창립

법타스님, 몽골대표단과 합의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 확대를 위한 '한몽불교친선협회'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창립된다.

한몽불교친선협회 창립준비위원장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대표)은 11~14일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를 방문, 몽골불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2001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한몽불교친선협회를 창립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타스님은 "몽골은 800년전부터 티베트 불교를 믿어온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교민중 개신교 전도사가 7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포교 열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불교중흥을 도모하고 있는 몽골 불교계를 지원하기 위해 친선협회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미학硏 지리산 천도재

민족의 영산이자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간직한 영산 지리산에서 '칼날이여 연꽃이 되라'는 주제로 천도재가 모셔졌다.

민족미학연구소는 28일 고산스님을 모신 가운데 합토합수 의례와 함께 천도재를 지내 지리산 자락의 원혼들을 위로했다. 이어 열린 지리산 살림한마당에서는 민족미학연구소 다도연구회의 선차의례와 오영숙의 한풀이 춤 공연, 김영동의 우리 음악 연주, 김지하 시인의 이야기 마당 등으로 행사의 의미와 뜻을 정리하며 천도재 2001 '칼날이여 연꽃이 되라'를 회향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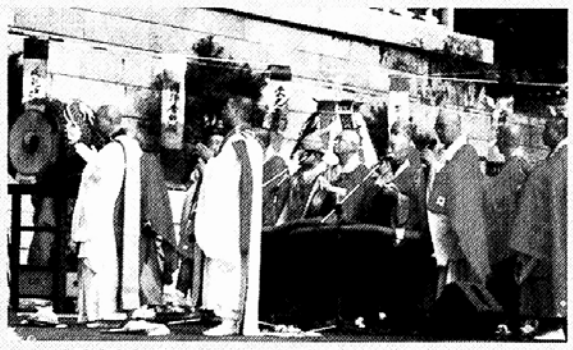
대전 용문복지관 수탁

진각복지재단 2004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11월 1일 대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에 들어간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 527평, 건평 604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건물로 방과 후 공부방, 조기교육센터, 노인정,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 가운데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복합복지관으로서의 가능도 보이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노인대학, 성인 및 아동 취미교실, 장애아동 탁아방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042)942-0144 오종욱 기자



◇영산작법보존회가 20일 금산사에서 불교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소리축제에서 영산작법 공연

12일부터 21일까지 전주에서 열린 '2001 전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중 '제의와 영혼의 소리' 분야에 영산작법이 공연됐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영산작법보존회(석정스님 등 18인)는 20일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세계소리축제의 피날레로 불교음악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축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향산 스님 등 내외국인 15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4대5온 놓으면 오가되 걸림없어"

삼론종 석봉종정 추대식



삼론종(총무원장 혜승)은 14일 평창 부석사에서 제2세 종정 석봉스님 추대식(사진)을 봉행했다. 석봉 종정은 이날 법어를 통해 "봄이 오니 산은 스스로 푸르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에 머물러 몸을 썩이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듯이 자신을 늘 방하착하라. 사대오온을 놓아버리면 창공을 오고가되 걸림이 없도다"고 설했다.

석봉 종정은 지난 63년 신륵사에서 유연수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4년 사미계, 80년 태고종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87년 삼론종 총무원장, 92년 조동종 종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까지 삼론종 부종정으로 종단 중흥과 수행에 정진해 왔다.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삼론종 일본 대만회장 진지마 스님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부산불교계 '청정화합 모임' 만든다

범종단-단체 합심 환경 · 복지운동 벌여

정각 · 혜총스님 공동대표…11월부터 본격 활동

국내 최고의 불심 도시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부산 불교연합회가 불교 신행은 물론 환경, 인권 등 사회 제반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하는 시민운동모임을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7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인권 복지 통일 환경 분야 등 모든 사회 제반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운동모임으로 '청정과 화합의 사회를 가꾸는 모임(이하 청정화합모임)'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와 지역 사회의 문제에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취지의 이 모임은 비판과 대안제시의 기능을 함께 갖출 전망이다. 우선 참여자치시민단체 상임공동대표, 부산인권센터 상임대표 등을 맡아 부산시민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각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해 놓은 상태다. 또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섭외에 들어갔다. 빠르면 한 달 내에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청정화합모임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인간과 자연의 일치를 위한 환경운동, 민족의 화합을 위한 통일운동, 중생의 안락을 위한 복지운동, 인권신장과 교권수호를 위한 운동, 제반 활동의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 활동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야간의 연계에서 오는 효과도 십분 활용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청정화합모임이 급격히 변하는 세태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은 하되, 조직은 부산불교연합회와는 별도로 분리시켜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를 맡은 정각스님은 "청정화합모임을 계기로 불교계의 결집된 힘을 대사회적으로 드러내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시민단체나 타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연계는 필수라는게 공통된 의견.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치는 타종교 시민운동단체와의 교류는 정체되었던 부산불교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대사회적 운동에서 불교계의 위상을 높혀주는 자극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성재도 사무국장은 "청정화합모임은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있는 세상, 즉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부산불자들의 오랜 원력을 실천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스님과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부산시민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의정부서 가두시위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지섭스님)는 24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도봉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봉선사 주지 일면,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을 비롯한 1백여 불자들은 이날 시위에서 결의문을 통해 도봉산 관통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의 건설 중지와 의정부시 외곽 대안노선 채택, 불교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 NGO 네트워크' 11월 5일 출범

'맑은 종교인상' 제정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는 11월 5일 오후 2시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종교자정운동에 나선다.

발족식과 기념심포지움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종교NGO네트워크는 '맑은 종교를 위한 종교인 경제윤리 헌장'과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종교NGO네트워크는 또한 각 종교별로 5인씩 15명을 '맑은 종교인상' 제정위원으로 위촉, 12월 중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상은 종교재정의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 청정한 수행태도를 보여준, 종교별로 각1인씩 3명의 종교인들에게 수여된다.

종교NGO네트워크는 한국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재정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이라는 판단아래 올 3월부터 준비위를 꾸려 투명한 종교재정, 올바른 경제윤리 정립을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90년대 이후 한국종교는 '종교의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혼주식회사'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사회적인 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올바른 종교를 위한 개혁운동이 종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BBS도 휴대폰 포교

불교방송(사장 김규칠)이 불교언론계에선 두번째로 011 등 5대 통신사 휴대폰을 통해 부처님말씀을 서비스한다. 불교방송은 '1인 1대 휴대폰 소유 시대'를 맞아 부처님말씀을 휴대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전송을 현재 서비스 중이며 향후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자서비스는 법구경 숫타니파아타 아함경 등이 내용이며 음성서비스는 기존 녹음된 부처님말씀 중에서 전송한다. 불교방송은 또한 향후 유료 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불화 불교캐릭터 다운로드, 불교만화, 게임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서비스신청 www.bbsfm.co.kr

한편 현대불교신문사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011, 016, 017 등 5대 통신사 휴대폰을 통해 부처님말씀과 불교뉴스, 사찰정보, 퀴즈 등 다양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천안 성불사 돋보기 선물

1천5백여명 받아

눈이 어두워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선물하는 행사가 26일 충남 천안 태조산 성불사(주지 원경)에서 열렸다. 지역 노인들에게 '돋보기 보시'를 해오고 있는 성불사가 이날 천안 동면에 살고 있는 140여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선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성불사의 돋보기 보시는 지난 1월에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1천 5백여 노인들이 혜택을 입었다. 성불사는 앞으로도 천안시의 25개 읍 · 면 · 동 2천 5백여 노인들에게 안경을 보시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노인들에게 제공할 안경은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 돋보기는 신양당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섭씨(성불사 신도회 감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원경스님은 "안경을 받는 노인들도 좋아하지만, 불법을 실천하는 신도들이 너무 기뻐한다"며 "노인들 사이에 호응이 대단해 타종교 노인들도 상당수 성불사를 방문해 안경을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용주사 주지 선거관련 법원 판결 '강압분위기속 선출은 무효'

"또 사회법 의존"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의지해 해결하려고 하는 관행이 또다시 재연됐다.

지난해 4월 수원 용주사 주지선거와 관련 주지 후보였던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23일 "강압적 분위기속에서 치러진 주지 후보자 선거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단내부의 결정이라도 현저히 정의에 어긋날 경우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주지 후보자가 선거직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선거당일 경쟁후보로 출마했던 원고에 대한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돼 공정한 투표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종단구성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만 보고 판단했다"며 "당시 사건은 후보였던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비난하자 호법부 스님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주지선거와 무관한 일이다"고 밝혔다.

교계의 한 불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종단문제를 사회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스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단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용주사 산중총회에서는 선거인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주지 ㅈ스님이 69표, 소송을 제기한 ○스님이 9표를 얻었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유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24층 주상복합건물 건축 놓고 시공사, 조계사에 '협상' 공문

조계사 인근 24층 주상복합건물 건축문제와 관련, 시공주인 '넥스트이미지'는 23일 조계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2면 사설) 넥스트이미지는 공문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손해는 국가 또는 규모축소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얻는 측에서 당사에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는 본 사업진행을 통해 불사에도 참여하고자 하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하자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편 조계사 측은 26일 빌딩 시공자인 한라건설 배영한 이사를 만나 "조계사는 근본적으로 이 빌딩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배 이사는 "조계사와 넥스트 이미지가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명우 기자

승가대 안암학사 '고시원 임대' 결의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임대계약이 다시 이뤄진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2일 "이번 재계약에서는 임대목적과 사용을 고시원으로 명확히 하고, 임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연체시 연 18%의 이자 환수와 월 임대료 2개월 연체시 해지, 계약 종료 후 시설물 무상양도, 보험가입, 1층 식당(110평) 개운사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는 "원안대로 재계약 할 것"을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앓는 불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정신배(37 · 사진) 불자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그가 이 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아들 정인철 군이 뇌종양으로 죽게 되자, 골수성백혈병이 급성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정 씨는 그의 친형과 골수 조직이 일치해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투병생활과 아들에게 들어간 의료비로 이미 5천 여 만원의 빚이 있을 정도로 가계가 어렵다. 골수성백혈병이 급성으로 되기 전까지도 정 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보덕사를 자주 찾으며 보살행을 멈추지 않았다. 정 씨가 뇌종양으로 죽은 아들의 장기를 기증, 5명의 생명을 살린 것도 보살행이 몸에 밴 탓이다. 도울 분은 생명나눔의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053-01-243778 문의 (02) 734-8050 오종욱 기자

고침 지난호(340호) 2면의 국묵담 스님 관련 기사중 '통합종단 때 조계종 종정…'을 '태고종 종정…'으로, 23면 '동일돼지 10억여원 모금'의 제목과 기사 내용중 '10억여원'은 '1억8백40여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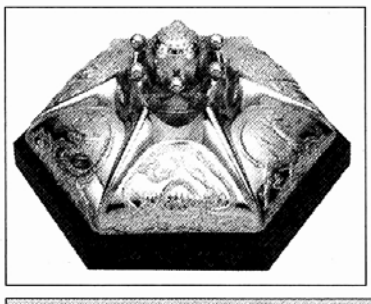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身將)이 항상 수호해 줌으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3호 집터 묘지 납골묘 전용 혹 유기방 3천 하우스 25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 벌집의 힘 ☘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벌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요 합니다.

1.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않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화가 겹치시는 분 5.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 6. 결혼을 앞두신 분
7.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구입하십시요.

(주) 명당 육기(氣)방 ☎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현대불교와 함께하는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개시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부다피아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초년도 연회비 면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